

## 陳士鐸의 《脈訣闡微》에 관한 研究

정동혁·박경남·맹웅재\*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 A study on the Mai Jue Chan Wei of Chen Shi Duo

Jung Dong Hyuk, Park Kyoung Nam, Maeng Woong Jae\*  
Dep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ersity

This thesis is a study about Mai Jue Chan Wei (脈訣闡微) among many medical books by Chen Shi Duo (陳士鐸) who was a famous medical practitioner of China under the early Qing dynasty. Chen Shi Duo (陳士鐸) who is from, Shaoxing (紹興), Zhejiang (浙江) had his pen-name as Jing Zhi (敬之) and also was called as Zhu Hua Zi (朱華子) or Lian Gong (蓮公) under pseudonym of Yuan Gong (遠公). He was a medical practitioner under the early Qing dynasty in China and the date of birth and death was not for sure nor was written in the history book.

Key Words : traditional korean medicine, Mai Jue Chan Wei, Chen Shi Duo,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 I. 서론

脈診은 四診 중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고대로부터 韓醫學의 辨證施治에 대한 不可缺하고 客觀的인 診斷法으로 應用되어 왔다. 또한 脈診은 오랜 歷史와 더불어 많은 醫家들의 經驗과 研究 努力이 蓄積되어 發展되고 體系化된 診斷 方法이다. 이에 清代의 著名한 醫家중의 한 사람인 陳士鐸의 著書 중 脈法과 關聯된 《脈訣闡微》를 통하여 그의 脈法에 대한 思想을 살펴 脈診을 理解 發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陳士鐸의 字는 敬之이고 號는 遠公으로 朱華子 또는 蓮公이라 불렸으며 浙江 紹興人이다. 清代 初期 醫家로서 사망과 출생연도는 확실하지 않고 史書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山陰懸志》에 “陳士鐸은 시골의 서생으로 병을 잘 치료하였으나 사람들로 부터 댓가를 받지 않았고 80세에 죽었다”<sup>1)</sup>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80여세에 죽었다는 것을 짐작할 뿐이다.

그리고 《洞天奧旨·跋》에서 “일찍이 나의 할아버지 陳士鐸은 어려서 과거를 여러 해 준비하였으나 운이 없어서 그때마다 떨어져 북경을 몇 번 다녀온 후 그 뜻을 펴지 못하고 의학에 전념하였다”<sup>2)</sup>라고 한 것으로 보아 陳士鐸은 본래 유학에도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本草新編·凡例》에 보면 “陳士鐸은 어려서부터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였는데 이름난 山이나 경치 좋은 곳에 올라 많은 奇人을 만났고, 의술을 논하였는데 진실로 얻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기록하여 두었다”<sup>3)</sup>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陳士鐸의 자

\* 교신저자 : 맹웅재 전라북도 익산시 신웅동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063-850-6838

1) 陳士鐸, 邑諸生, 治病多奇中, 醫藥不受人謝, 年八十卒, 柳長華, 陳士鐸醫學學術思想研究, 山東中醫藥大學, 1999.  
2) 曾祖遠公, 自少習學業, 以數奇, 屢試輒蹶, 已而出游京師, 復不得志, 遂究心于醫學焉, 柳長華 主編, 前揭書, p.1016.  
3) <本草新編·凡例十六則> ‘鐸少喜浪游 凡遇名山勝地 往往探奇不倦 登眺時 多逢異人 與之辨難刀圭 實能開蕩心胸 增益神

연을 탐구하고 의술을 연구하여 기록한 면에 대하여 알아 볼 수 있다.

陳士鐸은 일생동안 많은 저술활동을 하였는데 현존하는 것은 《石室秘錄》, 《辨證奇聞》, 《辨證錄》, 《本草新編》, 《外經微言》, 《辨證玉函》, 《洞天奧旨》, 《脈訣闡微》, 《辨證冰鑒》 등이 있다. 《外經微言》은 의학 이론을, 《本草新編》은 방약이론을, 《洞天奧旨》는 외과에 대해, 《石室秘錄》, 《辨證奇聞》, 《辨證錄》, 《辨證冰鑒》, 《辨證玉函》은 잡병의 치료에 대해 쓴 것이다.<sup>4)</sup> 그리고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脈訣闡微》는 陳士鐸의 脈法에 대한 이론을 저술한 책이다.

《脈訣闡微》는 일명 《鬼眞君脈訣》이라고도 하는데 현재에는 陳士鐸의 著書중 하나인 《辨證錄》의 附錄으로서 傳하고 있다. 《脈訣闡微》모두 5篇으로 構成이 되어 있는데 第1篇에는 診脈에 대한 總論 部分으로 38가지의 脈象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寸,關,尺의 定位, 脈診할 때 醫師의 자세, 四時에 따른 順逆脈 및, 診脈의 일반적인 機轉에 대하여 說明하고 있다. 第2篇에는 脈象에 따른 病症에 대하여 자세히 論하였고, 第3篇에는 寸,關,尺의 部位에 따른 각 病症을 설명하였다. 第4篇에서는 症狀別로 脈象을 列舉하고 그에 따른 生死脈을 言及하고 있으며 第5篇은 ‘婦人, 小兒脈訣’로서 婦人과 小兒를 診脈할 때에 特徵과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하여 言及하고 있다.

이 책을 《辨證錄》의 뒤에 붙여 놓은 이유는 《辨證錄·凡例》에서 나타나 있는데 “辨症하면서 辨脈하지 않은 것은 症이 알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證을 잘 알고 있다면 辨脈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辨證을 하고 辨脈까지 할 수 있다면 병을 더욱 잘 치료할 수 있으니 善用하는 것은 의사에 달려있다.”<sup>5)</sup>에서 알 수 있듯이 辨證錄이 비록 辨證에 의한 施治에는 부족함이 없는 책이지만 辨脈이 不足하다고 생각되었고, 辨證과 辨脈은 따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부록으로 붙여 놓은 것이다.

그리고 《脈訣闡微》는 《內經》의 내용과 정신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고, 王叔和의 《脈經》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비판, 수정 하므로서 脈學의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하고 陳士鐸의 독특한 견해가 더해진 책이라고 할 수 있다.

## 第一篇 研究方法

智 苟有所得 必書簡中’ 柳長華 主編, 前揭書, p.87.

4) 柳長華 主編, 前揭書, p.1138.

5) 辨證不辨脈者 以症之易識也 苟能知證 何必辨脈哉. 雖然辨證 更能辨脈 則治病益精 又在人善用之耳,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97.

1. 本 論文은 中國中醫藥出版社에서 1999년에 출판한 《陳士鐸醫學全書》내의 《脈訣闡微》를 底本으로 하였다

2. 原文中 第5篇에만 ‘婦人·小兒脈訣’이라는 篇名이 있을 뿐 第1篇에서 第4篇까지는 篇名이 붙어있지 않아서 第1篇에서 第4篇까지 주제에 맞는 篇名을 붙여 보았다.

3. 本書는 鬼眞君曰로 시작된 문장을 陳士鐸曰로 해설하는 형식으로 쓰인 관계로 저자 또한 鬼眞君의 내용을 기준으로 삼고 陳士鐸의 해설을 덧붙여서 보충하는 형식으로 편집하였다.

4. ◎ 鬼眞君曰로 시작된 부분은 鬼眞君이 論한 것이고, ● 陳士鐸曰로 시작된 부분은 陳士鐸이 論한 것이다.

## II. 본론

### 第一篇 總論

이 篇은 總論의 의미가 있는 篇으로서 脈을 寸,關,尺으로 구분해야 하는 이유와, 脈과 陰陽五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脈의 기본적인 특징을 말하고 있고, 脈을 관찰하는 醫者의 태도에 대하여 論하고 있다. 그리고 五臟의 脈이 七腑를 統攝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 1. 上中下の 원칙에 의해 寸,關,尺으로 구분함

#### ◎ 鬼眞君曰

鬼眞君은 脈理는 심히 미묘하며 한마디로 다 말할 수 없는데, 生死를 구별하고, 臟腑를 관찰하고, 症候를 살펴보면, 脈을 上中下로 分類해서, 寸,關,尺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脈의 理致를 알기 위해서는 上中下の 원칙에 의해서 寸,關,尺으로 나누어 관찰할 것을 주장하였다.

#### ● 陳士鐸曰

鬼眞君이 脈理와 寸,關,尺에 관해 論한 부분에서 부족하였던 내용을 陳士鐸은 총론적인 관점에서 脈의 기

6) “脈理甚微, 原非一言可盡; 人病多變, 又豈一脈能包. 論其陰陽, 別其生死, 察其臟腑, 觀其症候, 既上中下之宜分, 必寸,關,尺之自定.”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3.

본적인 성질을 보충 설명하였다.

1) 脈의 精微함은 淺近한 곳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陳士鐸이 脈診에 있어 기본적인 부분을 말했는데 脈의 精微함은 淺近한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精微함을 지나치게 深遠한 곳에서 찾으려 하면 반대로 잃게 될 수 있으므로 淺近한 곳에서 精微함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 脈은 陰陽의 두 성질을 모두 포함한다.

陳士鐸은 모든 사물이 陰陽의 성질을 가지고 있듯이 脈에도 역시 陰陽의 성질이 있다고論하고 있다. 단, 脈을 陰陽의 두 성질로 兩分한 王叔和의 七表八裏<sup>8)</sup>에 대하여 비판을 하고, 陽中之陰, 陰中之陽이라고 하여 어느 脈이든 陰陽의 두 성질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陽中之陰과 陰中之陽을 알고자 하면 診察하는 가운데 消息<sup>9)</sup>하여 가슴에 뜻을 모으면 알 수 있다<sup>10)</sup>고 하였다.

## 2. 儒家의 ‘性情命’에 따른 脈의 左右寸,關,尺의 五臟配屬

### ● 鬼眞君曰

鬼眞君은 儒敎의 독특한 관점에서 寸,關,尺을 논하였다. 寸,關,尺을 儒家에서 언급된 ‘性情論’과 ‘陰陽論’에 근거해서 근본(體)인 性과 쓰임(用)인 情을 左寸關, 右寸關으로 나누어 각각 臟을 配屬하였다. 心肝이 배속된 左寸關을 火木의 至性이라 하였고 肺脾가 배속된 右寸關을 深情이라 하였다. 또한 兩尺은 水火之臟으로서 水火는 나누기 어려우므로 腎·命門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腎이라 하였고, 중간을 命門이라고 하였다. 보통 左腎·右命門으로 보는 관점과 달리, 左右兩尺에서 腎·命門이 같이 있는 것으

로 본 것<sup>11)</sup>이다. 따라서 左寸關을 性, 右寸關을 情, 兩尺을 命으로 본 性情命의 관계를 완성시켰다.

### ● 陳士鐸曰

1) 命門은 12經의 主가 된다.

陳士鐸은 鬼眞君이 오직 五臟만 중시하고 七腑의 脈은 생략하고 언급하지 않았으며 다만 三焦와 命門만 세상에 명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命門은 12經의 主人바 世人이 알지 못하고 右尺만을 관찰하게 되면 命主의 義를 잃을까 두렵기 때문<sup>12)</sup>이라고 말하였다. 즉, 陳士鐸은 鬼眞君의 寸,關,尺의 性情命의 관점에서 봤을 때 命門의 의미는 다른 腑와는 다르기 때문에 命門을 12經의 主가 되는 중요한 腑라고 보충하여 말한 것이다.

## 3. 三部脈에서 五臟의 중요성

### ● 鬼眞君曰

第一篇에서 가장 많이論하고 있는 부분이다. 鬼眞君은 三部(浮中沈)를 눌러서 診斷하는 법과 호흡을 세어 경락을 진단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脈을 돌아보는 것은 단연 寸,關,尺의 五臟配屬을 위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臟을 알게 되면 腑도 通治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鬼眞君은 말하였다.<sup>13)</sup> 그리고 이것은 뒤에서 陳士鐸이 脈을論함에 있어 七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五臟만을 중시함의 근거가 된다.

### ● 陳士鐸曰

陳士鐸은 鬼眞君이 七腑를 생략하고 五臟만을 중시하게 되었는지 보충설명하고 있고 구체적인 이유와 치료방법도 제시하였다.

1) 五臟이 七腑를 統攝한다.

陳士鐸은 鬼眞君이論한 것을 거듭 말하고 있는데,

7) “脈理之不明也久矣，以致看病不眞，用藥寡效，是脈之精微不可不講也。然而精微出于淺近，過求乎窺查，反致失之。此鬼眞君脈訣之妙，妙在淺近，使人人易知而深入也。”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3.

8) 七表단 浮脈·芤脈·滑脈·實脈·弦脈·緊脈·洪脈이고, 八裏단 微脈·沈脈·緩脈·濡脈·遲脈·伏脈·濡脈·弱脈이다. 七表는 陽이고 八裏는 陰이다. 表脈은 左手에 많이 나타나고 客이 主를 따라 변하며, 裏脈은 右手에 많이 나타나고 主가 客을 따라 변한다. 王叔和脈訣, 成輔社, p.122.

9) 消息: 어림잡아 헤아림, 짐작함.

10) “脈有陰陽之不同，王叔和分七表八裏，似乎切脈之分明。不知無一脈無陰陽，非浮爲陽而沈爲陰，遲爲陰而數爲陽也。陰中有陽，陽中有陰，于中消息，全在臨症時察之，心可意會，非筆墨能繪畫耳。”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3.

11) “左寸心，左關肝，火木寧無至性；右寸肺，右關脾，土金本有深情。惟兩尺爲腎，水火實難分配；中間是命，左右還可同觀。三焦別上中下以相診，餘經合寸，關，尺而共視。”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3.

12) “五臟七腑各有脈，俱在寸，關，尺觀之。《內經》分三部之內外、前後、上下、以細察其部位，何其詳也。而鬼眞君獨重五臟，將七腑略而不言，止將三焦命門以示世，又皆不專屬之于腎，何其略也。不知臟可以包腑，而腑不可以包臟，論腑太詳，必至反遺夫臟矣。不若專言五臟，治臟而治腑在其中矣。三焦乃腑之一，何獨舉而言之？因世錯認三焦在于腎中，故特指明也。命門爲十二經之主，世人不知，而以右尺觀之，恐失命主之義，故鬼眞君辨明之也。”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6.

13) “蓋部位烏容倒置，辨貴分明，而表裡何必細分，不宜拘執。雖按指以三部爲法，數息便悟斷經。顧看脈以五臟爲主，知臟即通治腑。”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3.

五臟의 脈은 七腑를 統攝하기 때문에, 腑病은 臟을 치료하면 즉, 臟이 편안하면 腑 역시 스스로 편안해진다 고 하였다. 고로 脈訣에서는 단지 臟만 언급했을 뿐 腑를 말할 필요가 없다<sup>14)</sup>고 하였다.

2) 七腑의 脈을 생략함의 理致에 대해 논하였다.

陳士鐸은 內經에 六腑로 나누어져 脈을 설명하고 있으나 일정한 理致가 없고, 臟腑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고 五臟을 빼고 五行의 生克을論하게 되면 病이 깊어질 수도 있으므로 七腑는 생략하고 五臟을 언급하였다<sup>15)</sup>고 하였다.

3) 表裏關係를 이용하여 五臟으로 七腑를 치료할 수 있다.

臟腑의 表裏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바 表를 다스리면 裏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해서 臟腑의 治療方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五臟에는 각각 表裏가 있는데 心과 小腸은 表裏가 되며 肝과 膽은 表裏가 된다. 肺와 大腸이 表裏가 되며, 脾와 胃가 서로 表裏가 되며 腎과 膀胱이 表裏가 된다. 表病은 곧 裏病이니 원래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으니 곧 裏를 다스리려면 그 表를 다스려야 한다. 그러므로 表裏를 나누어 表를 表라고 하여 臟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고, 裏는 裏로서 腑에 속하지 않는다<sup>16)</sup>고 할 수 없다.”

4) 五臟脈을 관찰시 問症을 겸하여 관찰한다.

陳士鐸은 五臟脈이 중요하기는 하나 五臟脈을 관찰할 때는 問症을 하여 臟病인지 腑病인지 판단한 후 五臟脈을 함하여 살펴보아야 精微함을 얻을 수 있다<sup>17)</sup>고 하였다. 즉, 症이 腑病이라면 臟脈과 함하여 보는바 臟脈이 病이 아니면 이는 腑病인 것이므로 腑를 치료하면 病은 나올 수 있다고 하였다. 반대로 症이 臟病이라면, 역시 臟脈과 함하여 臟脈이 病이라면 이는 腑病

이 아니므로 臟을 치료하면 病이 역시 낮는다고 하였다.

#### 4. 脈과 五行의 生克關係

##### ● 鬼眞君曰

鬼眞君은 四令의 節氣를 관찰해보면 봄, 여름은 가을, 겨울과 다르게 一日의 시간을 살펴보면 寅卯는 申酉와 다르므로 만약 克을 만나면 凶하고, 반대로 生을 만나면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내가 生하면 緩하고, 我를 克하면 치료하기 어렵다<sup>18)</sup>고 하여 脈을 五行의 生克關係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

##### ● 陳士鐸曰

陳士鐸은 鬼眞君의 脈과 五行生克關係에 대한 내용을 季節, 時間, 臟腑의 病으로 구체적으로 보충해서 서술하고 있다.

1) 脈의 季節에 따른 相克, 相生를 논하였다.

陳士鐸은 각 계절에 주관하는 脈이 있는데 주관하는 脈이 아닌 生克關係에 따른 脈이 나타나면 太過, 不及하여 病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 즉, 春에는 弦脈이 주관하고 夏에는 鉤脈이 主하게 되고 秋에는 毛脈이 主하고 冬에는 石脈이 主하고 長夏에는 軟弱脈이 主한다. 그런데 봄에는 弦脈이 마땅한데 毛脈이 나타나거나 여름에는 鉤脈이 마땅한데 石脈이 보이면 이것은 克하는 脈으로 病이 없는 자가 없게 된다<sup>19)</sup>고 구체적인 예로서 설명 하였다.

2) 脈의 時間에 따른 相克, 相生를 논하였다.

脈과 時間에 대하여 論하고 있는데 時間도 五行配屬에 따르기 때문에 生하는 時間을 만나면 病이 약해지고 克하는 時間을 만나면 病이 重해진다는 것<sup>20)</sup>을 말하고 있다. 즉, 金脈이 金의 時에 만나면 반드시 왕성하게 되고, 木脈이 金時를 만나면 반드시 衰한다고

14) “蓋五臟之脈, 能統攝七腑, 腑病治臟, 臟安而腑自安, 故脈訣止消言臟而不必言腑也。”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3.

15) “今鬼眞君之訣, 將七腑全然不講, 不更滋甚乎。然而切脈止可切五臟也。七腑部位《內經》雖分, 似乎有一定之理, 而究難別臟腑之異, 不若單切五臟, 論其五行之生克, 病情反無可遁也。此鬼眞君不言七腑, 真是至捷之法, 亦是至玄之機”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6.

16) “五臟各有表裏, 心則與小腸爲表裏也, 肝則與膽爲表裏也, 肺則與大腸爲表裏也, 脾則與胃爲表裏也, 腎則與膀胱爲表裏也。表病則裏病, 原相關切, 故治裏正所以治表也。何必分表是表, 而不屬之于臟, 裏是裏, 而不屬之于腑哉。”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2.

17) “脈貴之微, 然而得其微又甚難也。暗中摸索, 而欲使臟腑之疾病了然于指之間, 易乎不易乎。雖然切脈必須問症, 症是腑病, 即以臟之脈合之, 臟之脈不病, 便是腑病也, 治腑而病可愈矣。症是臟病, 亦以臟之脈合之, 臟之脈病, 是非腑病也, 治臟而病亦愈矣。苟知此法, 又何微之不可得哉。”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6.

18) “察四令之節氣, 春夏異于秋冬; 審一日之晷時, 寅卯殊于申酉。大約逢克則凶, 逢生可救, 我生則緩, 我克難醫, 因五行而推斷, 舉一隅而可知。”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3.

19) “春夏秋冬長夏各有定脈, 《內經》已詳言之矣。春主弦也, 夏主鉤也, 鉤即微洪之意, 秋主毛也, 冬主石也, 長夏主軟弱也。太過不及, 均是病徵。尤不可見者, 克我之脈也。如春宜弦而見毛, 夏宜鉤兒見石, 及至秋冬, 未有不病者。餘可類推矣。”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4.

20) “脈隨血而行, 而血隨時而運。病脈行至克我之脈, 則病必重, 行至生我之脈, 則病必輕。蓋金脈逢金時必旺, 木脈逢金時必衰, 故木病值寅 卯則木當其令, 逢申酉則木失其時。觀寅卯申酉之旺衰, 即知金木之病情徵候矣。即一木而可通之火土水金, 即寅卯申酉而可通之子午巳亥辰戌丑未也矣。”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4.

하여 시간에 따른 生克을 論하였다.

3) 臟腑의 病과 五行의 生克을 논함

陳士鐸은 臟腑의 病 또한 五行의 生克을 벗어나 생각할 수 없음을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臟腑의 病이 生을 만나면 病이 쉽게 낫지만, 克을 만나면 病이 낫기 어렵게 되는데, 我가 生한즉 我의 氣를 泄시켜서 쉽게 나올 수 있지만 我가 克한즉 我의 神을 耗하게 하여 낫기 어렵다<sup>21)</sup>고 하여 이를 설명하고 있다.

5. 諸脈의 특징을 논함

● 鬼眞君曰

鬼眞君은 脈의 類似, 相反關係를 論하였고 36各脈의 특징에 대하여 말했다. 뒤에 陳士鐸은 36脈에 絶脈, 平脈을 포함시켜 38脈을 論하였다.

1) 脈의 類似, 相反의 區別의 중요성

弦은 緊脈과 유사하고, 澁은 微脈과 유사하며, 浮와 芤는 相反되며, 沈과 伏은 다르지 않고 같다. 洪과 實은 상태가 같고, 弱은 濡脈의 형상이다. 그리고 이 辨別을 잘 한다면 病을 쉽게 찾아 낼 수 있다<sup>22)</sup>고 하였다.

2) 36諸脈을 論함

急하면 痛症이 있고, 弦하면 風이며, 緊하면 邪가 있다. 緩한 것은 虛이며, 微한 것은 冷하고, 數한 것은 熱이다. 滑한 것은 痰이 많은 것이요, 澁한 것은 塞한 것이며, 洪한 것은 火가 旺盛한 것이고, 大한 것은 血乾한 것이다. 沈한 것은 陰寒한 것이요, 遲한 것은 困乏한 것이며, 小한 것은 氣가 衰한 것이요, 細한 것은 血涸한 것이다. 浮한 것은 氣가 升한 것이요, 伏은 脈이 結한 것이며, 芤脈은 失血이 많은 것이다.

實은 壅氣된 것이 많고, 弱한 것은 陰虧한 것이며, 濡脈은 濕이 犯한 것이고, 長脈은 正氣가 和한 것이다. 短脈은 邪氣가 搏한 것이고, 促脈은 正氣가 모순된 것이며, 動脈은 變動의 機가 있는 것이고, 靜脈은 安定을 좋아하는 것이다. 毛脈은 火가 장차 旺盛하려는 것이고, 石脈은 水가 極沈한 것이며, 軟脈은 力이 薄한 것이고, 堅脈은 邪가 深한 脈이다. 鈎脈은 氣血이 和하며, 躁脈은 氣血이 燥한 것이다. 搏脈은 太過할 우려가 있

21) “臟腑之病, 雖各不同, 要不外五行之生克, 逢生則病易愈也, 逢克則病難痊也, 我生則泄我之氣, 我克則勞我之神. 臟腑爲戰爭之地, 胸腹爲角鬪之場, 敵則掃除, 而斬殺甚多, 傷損必過矣. 調停于生克之間, 和解于敗亡之內, 仍于金木水火而善用之地.”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4.

22) “弦似乎緊, 澁似乎微, 浮與芤相反, 沈與伏寧殊, 洪同實狀, 弱帶濡形, 辨之既清, 病將安遁.”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4.

으며, 散脈은 未무르지 못하는 狀이다.<sup>23)</sup>

● 陳士鐸曰

大綱을 論한 鬼眞君의 내용에 絶脈과 平脈을 보충하여 38諸脈에 대한 특징을 陳士鐸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絶脈과 平脈은 辨證時에 論하기에 적절하지 않지만 絶脈은 死脈으로서, 平脈은 평온한 脈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陳士鐸은 두 가지 脈을 추가하여 論했다고 볼 수 있다.

1) 類似脈 分別을 중시해야한다.

陳士鐸은 鬼眞君의 類似脈을 論한 것에 보충하여 類似脈의 착오로 인하여 生死의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類似脈 分辨을 신중히 하라<sup>24)</sup>고 말하였다.

2) 各脈의 특징<sup>25)</sup>

(1) 急脈의 특징

急脈은 痛症과 연관이 있고 數脈과 緊脈과 類似하나 完만하지 않은 脈狀으로 正과 邪가 相爭하는 것<sup>26)</sup>이라고 하였다.

(2) 弦脈의 특징

陳士鐸은 弦脈을 肝部의 脈으로 봐서 木의 正脈이고 風木과 관련이 있다<sup>27)</sup>라고 하였다. 入門의 相兼主病에서도 弦脈은 肝部의 本脈으로 다른 부위에 나타나면 血虛하다<sup>28)</sup>고 하여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脈狀은 脈經에서 표현하기를 가볍게 짚으면 脈이 없다가 누르면 활의 줄과 같다고 하였다.

23) “故急則爲痛, 弦則爲風, 緊則爲邪, 緩則爲虛, 微則爲冷, 數則爲熱, 滑則痰多, 澁則鬱塞, 洪爲火旺, 大爲血乾, 沈爲陰寒, 遲爲困乏, 小者氣衰, 細者血涸, 浮者氣升, 伏者脈結, 芤多失血, 實多壅氣, 弱是陰虧, 濡是濕犯, 長是正氣之和, 短是邪氣之克, 代爲正氣之衰, 革爲正氣之脫, 結爲邪氣之搏, 促爲正氣之耗, 動有變動之機, 靜有安寧之喜, 毛主火之將旺, 石乃水之極沈, 軟是力薄, 堅是邪深, 鈎爲氣血之和, 躁爲氣血之燥, 搏擊指而有太過之虞, 散去指而無可留之狀.”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4.

24) “脈有相似而實不相同者, 尤宜分辨. 蓋脈似相同, 而病實各異, 一經錯認, 死生反掌, 可不慎歟.”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4.

25) 陳士鐸은 脈을 38種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陳士鐸의 脈의 특징을 서술한 것이 脈狀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여 《脈經》에서 논한 脈狀을 참고하였고 《醫學入門》의 諸脈相兼主病에서 소개한 내용과 비교하여 서술하였다.

26) “急則爲痛, 言見急脈卽爲痛病也. 急似乎數而未至于數也, 急似乎緊而未至于緊也, 有不可緩之狀, 乃氣與火相鬪, 邪與正相戰也.”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4.

27) “弦則爲風, 弦乃春天之正脈, 春天見弦脈, 正風木之得令, 非病也. 苟見于夏秋冬季, 則弦爲風矣.”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4.

28) “弦爲血弱 有努傷” 李稔 編註醫學入門 p.221.

(3)緊脈의 특징

陳士鐸은 緊脈을 邪로 보고 風邪에 심하게 몰렸을 때 緊脈이 나타난다<sup>29)</sup>고 하였다. 入門에서는 寒과 疼痛을 주관하는 脈이라<sup>30)</sup>보았는데 寒, 疼痛과 風邪는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脈狀은 脈이 빠르고 마치 끈을 대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였다.

(4)緩脈의 특징

緩脈에 있어서는 陳士鐸이 入門과 약간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入門에서는 正氣가 회복하는 脈의 근본이고, 緩은 胃氣가 회복되려고 하는 脈이라<sup>31)</sup>고 하였다. 뒤에서 언급하지만 鬼眞君도 緩脈이 長脈과 더불어 건강한 脈이라고는 하였으나 유독 陳士鐸은 虛한 脈이라<sup>32)</sup>고 하였다.

(5)微脈의 특징

陳士鐸은 微脈을 冷과 寒症이라<sup>33)</sup>고 보았고, 入門에서도 微脈은 中氣의 虛寒과 氣血의 虛弱을 주재한다<sup>34)</sup>고 하여 寒을 주재함을 알 수 있다. 脈狀은 극히 가늘면서 연하거나 끊어지려는 듯한 것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다고 표현하였다.

(6)數脈의 특징

陳士鐸은 數脈을 熱로 보았고, 數脈에 있어 陰數과 陽數의 구분이 있고 初數과 久數의 구분이 있다<sup>35)</sup>고 하여 자세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入門에서도 數하면서 힘이 있으면 熱症이라<sup>36)</sup>고 하였다. 脈狀은 脈이 往來가 빠르고 때로는 한번 멈추었다가 다시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7)滑脈의 특징

陳士鐸은 滑脈은 水가 結해서 생긴 痰<sup>37)</sup>으로 보았

고, 入門에서도 滑脈은 氣血의 實證과 痰飲의 停滯를 주재한다<sup>38)</sup>고 하여, 滑脈은 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脈狀은 往來가 매끄럽고 數脈과 비슷하다고 하였다.

(8)澁脈의 특징

陳士鐸은 澁하면 鬱塞하다 하여 氣血이 鬱滯된 것<sup>39)</sup>으로 보았다. 澁脈은 澁脈이라고 볼 수 있는데 入門에서는 澁脈은 精血의 損傷으로 인한 不足症이다<sup>40)</sup>고 보았다. 損傷의 의미와 鬱滯의 의미는 차이가 있지만 둘 다 澁脈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脈狀은 가늘면서 느린 것으로서 脈이 往來가 어렵고 또한 흩어지면서 또는 한번 멈추었다가 다시 온다고 하였다.

(9)洪脈의 특징

陳士鐸은 洪脈을 여름에 주재하는 脈으로 보았고 火旺의 極한 것<sup>41)</sup>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入門에서는 洪脈은 脹滿, 頭痛, 發熱, 煩燥를 주재한다<sup>42)</sup>고 하여 洪脈은 火와 熱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10)大脈의 특징

陳士鐸은 大脈을 洪脈과 비슷한 脈이라 하였고, 火가 왕성한 脈이라 보고 補血滋陰의 治法을 써야 한다<sup>43)</sup>고 하였다. 반면에 入門에서는 大脈은 病勢가 進展하는 脈의 盜賊이다<sup>44)</sup>고 하였다. 비슷한 의미이지만 陳士鐸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1)沈脈의 특징

入門에서 沈脈은 脈이 沈하면서 有力하면 積滯<sup>45)</sup>라고 하였는데, 陳士鐸은 沈脈을 積滯라기 보다는 陰寒한 기운으로 보고 있다<sup>46)</sup>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29) “緊則爲邪, 邪者, 亦風之類, 但風邪感之甚驟, 則脈必現緊耳。”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4.

30) “緊則爲寒 爲疼痛” 李梴 編註醫學入門 p.221.

31) “緩爲正復 脈之本” 李梴 編註醫學入門 p.221.

32) “緩則爲虛, 虛者重按之不能鼓指也, 鼓指亦非太勁之謂, 言其不能微微鼓指耳, 最宜活看。”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4.

33) “微則爲冷, 冷者寒也。不論何部見微脈者, 多是寒症。”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4.

34) “微主中寒氣血虛” 李梴 編註醫學入門 p.223.

35) “數者爲熱, 熱乃火病, 火性炎上, 其性最速, 故數脈作熱論也。但數有不同, 有陰數陽數之異, 有初數久數之分, 然而熱則一也。”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4.

36) “數而有力則爲熱” 李梴 編註醫學入門 p.222.

37) “滑則痰多, 天下至滑者無過于水, 痰亦水也。水多則痰生, 痰多則滑見宜也。然而水病不一, 滑脈不常, 何故單以痰多屬之滑也。不知水未結痰其體靜, 水既結痰其體動也。動極則滑極, 脈見滑矣, 非痰多而何。”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4.

38) “滑脈爲實爲停痰” 李梴 編註醫學入門 p.221.

39) “澁則鬱塞, 澁脈乃往來之不甚舒暢也, 此陰陽不和, 氣血不達, 外感于風寒, 內阻于憂鬱, 抑塞而不通, 鬱而未發之狀。六部見此象, 俱能成病, 而尤于肝經不宜, 一見澁脈, 即以解鬱通塞之藥急治之, 則隨手見功也。”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4.

40) “澁爲不足傷精血” 李梴 編註醫學入門 p.224.

41) “洪爲水旺, 洪者來大而去數也。洪與大有分, 按指若大, 久之而不見其大, 止見其數, 重按之不見其數, 而仍見其大者爲洪也。夏見此脈爲宜, 否則皆火旺之極也。”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4.

42) “洪爲脹痛爲熱煩” 李梴 編註醫學入門 p.224.

43) “大爲血幹, 大者重按而仍洪也。火之有餘, 乃血之不足, 血不能制火, 乃見大脈, 在夏天則猶非大忌。然見大脈即宜補血滋陽, 以水伏火之爲得耳。”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5.

44) “大爲病進脈之賊” 李梴 編註醫學入門 p.225.

45) “沈而有力則爲積” 李梴 編註醫學入門 p.221.

46) “沈爲陰寒, 沈者至深至象, 深則未有不陰, 陰則未有不寒者也。入石洞而陰寒逼人者, 正以其深沈耳。”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5.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沈脈의 의미로 볼 수 있다. 脈狀은 손가락을 위쪽에 대면 不足하지만 누르면 有餘하다고 말하고 있다.

(12)遲脈의 특징

陳士鐸은 힘이 걸땀되어서 進하고자 하여도 할 수 없는 脈<sup>47)</sup>이라 말하고 있고, 入門에서도 힘이 없으면 虛弱하거나 虛冷한 것이고, 힘이 있으면 疼痛의 害를 준다<sup>48)</sup>고 말하고 있다.

(13)小脈의 특징

小脈은 氣가 衰한 것인바, 小脈은 脈이 小한 것으로 大하지 못하는 것으로 氣가 충분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하여 小脈은 氣가 衰하고 충분하지 못한 것<sup>49)</sup>으로 보았다.

(14)細脈의 특징

陳士鐸은 血이 小해져서 脈이 細하게 되었다<sup>50)</sup>고 細脈의 기전을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入門에서는 寒濕으로 인한 脹滿과 泄瀉를 주재한다<sup>51)</sup>고 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脈狀은 脈이 가늘지만 연한 것이 微脈보다 크다고 하였다.

(15)浮脈의 특징

陳士鐸은 氣의 乘降관계에서 乘하는 脈이라<sup>52)</sup>고 설명하고 있다. 入門의 體狀에서도 浮脈은 손가락을 누르면 힘이 不足하고 들면 힘이 有餘하다<sup>53)</sup>고 하여 脈狀을 설명하고 있다.

(16)伏脈의 특징

陳士鐸은 代脈을 邪氣가 搏結하여 正氣가 나오지 못하는 것<sup>54)</sup>으로 보았는데, 入門에서도 邪氣의 閉塞으로 인하여 癢亂을 이룰 수 있다<sup>55)</sup>고 하였다. 따라서 結縛과 閉塞은 伏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7)芤脈의 특징

陳士鐸은 芤脈을 失血하게 되면 血을 滋養하지 못하여 가운데가 비어있는 脈이 나타난다<sup>56)</sup>고 설명하고 있다. 入門에서 芤脈은 血이 凝滯되어 유통하지 못한다<sup>57)</sup>고 하였는데, 血의 凝滯와 失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보이지만 血의 유통이 되지 못하는 관점에서 凝滯와 失血은 모두 芤脈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18)實脈의 특징

陳士鐸은 實脈은 邪氣가 正氣를 눌러 나타난다<sup>58)</sup>고 하여 邪氣와 正氣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入門에서는 伏熱로 인한 咳嗽나 嘔吐를 주재한다<sup>59)</sup>고 말하고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邪氣와 熱 모두 實脈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脈狀은 脈이 길면서 약간 강하다고 하였다.

(19)弱脈의 특징

陳士鐸은 弱脈은 強旺하지 못한 狀이라<sup>60)</sup>고 하여 虛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다. 入門에서는 陽虛로 인한 脛部와 身體의 痛症을 주재한다<sup>61)</sup>고 하여 弱脈은 虛하다는 의미가 통한다고 하겠다. 또한 軟하면서 沈細하여 누르면 손끝에서 마치 끊어지려는 듯 하는 脈狀을 가진 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濡脈의 특징

陳士鐸은 濡脈은 濡滯한 증상이라고 濕과 관련지어 沾滯하다<sup>62)</sup>는 표현을 하였다. 반면에 入門에서는 亡血과 虛痺를 주재한다<sup>63)</sup>고 하여 다른 견해로 설명하고 있다. 濡滯한 증상으로 설명한 陳士鐸이 좀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1)長脈의 특징

鬼眞君이 앞에서 언급했듯이 長脈과 緩脈을 귀하게 여기고 있어서 陳士鐸 또한 長脈은 正氣와 胃氣와 관련된 좋은 脈이다<sup>64)</sup>고 하였다. 반면에 入門에서는 長

47) “遲爲困乏，遲者言俟之而不能進也。行百里者半九十，非遲之謂乎。是其力乏神困，欲進而不能，非可進而不肯進也。”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5.

48) “遲而無力虛且寒 遲而有痛爲害” 李梴 編註醫學入門 p.221.

49) “小者氣衰，小脈言脈之小而不能大也，氣不充之故耳。”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5.

50) “細脈言脈之細而不能粗也。江河細流，正水縮也。人身之血少，自然脈細矣。”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5.

51) “細爲寒濕爲脹泄” 李梴 編註醫學入門 p.226.

52) “浮脈指按即得，氣舉而升之也。”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5.

53) “浮按不足舉有餘” 李梴 編註醫學入門 p.222.

54) “伏脈指按始終不可得，或隱隱約約，或有或無者，是邪氣搏結正氣而不能出也。用藥出之者生，然出之驟亦非佳兆。”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5.

55) “浮因邪閉成癢亂” 李梴 編註醫學入門 p.221.

56) “芤脈中空如無邊，血失則內無血養，安得不中空乎。”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5.

57) “芤主血瘀不流通” 李梴 編註醫學入門 p.227.

58) “實脈不獨按指有力，且有不可抑之狀，非正氣之有餘，乃邪氣之有餘也。邪氣有餘，自然壅阻正氣矣。”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5.

59) “實爲伏熱咳且吐” 李梴 編註醫學入門 p.223.

60) “弱脈不能強旺之狀，陰虛而不敢與陽氣相爭也。”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5.

61) “弱主陽虛脛體痛” 李梴 編註醫學入門 p.223.

62) “濡脈言其濡滯也，濕則濡非濡歟。”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5.

63) “濡爲亡血爲虛痺” 李梴 編註醫學入門 p.224.

脈은 陽毒이 臟으로 깊이 들어가 熱이 密閉되어 煩熱을 금할 수 없고 坐臥不安하며 몸에는 壯熱이 나는 것을 주재한다<sup>65</sup>고 하였다. 脈의 이해가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둘 다 長脈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2)短脈의 특징

陳士鐸은 短脈을 특별하게 보지 않고 長脈과 반대되는 脈으로 邪氣가 正氣를 極한 것<sup>66</sup>으로 보고 있다. 반면 入門에서는 氣滯로 인한 心腹痛을 주재하니 宿食과 內傷으로 三焦의 氣循環이 凝滯된 것<sup>67</sup>으로 보고 있다. 脈의 이해가 완전히 다르므로 둘 다 短脈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3)代脈의 특징

陳士鐸은 代脈을 正氣가 衰하여 痰이 맺혀 壅隔한다<sup>68</sup>고 하여 좋지 못한 脈으로 보고 있다. 入門에서도 역시 代脈은 반드시 죽는 脈으로 臟氣가 끊어진 것으로 平常人에게 나타나면 매우 상스럽지 못하다<sup>69</sup>고 보았다. 또한 脈狀은 脈이 올 때 빠르다가 멈추고 돌아오지 않다가 다시 뛰는 것이라고 하였다.

(24)革脈의 특징

陳士鐸은 革脈이 正氣가 脫하려 한다<sup>70</sup>고 하였다. 入門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革脈은 곧 虛寒이 뒤섞여 형성되고, 崩漏, 半產, 亡血, 失精을 주재한다<sup>71</sup>고 하였다.

(25)結脈의 특징

陳士鐸은 結脈이 邪氣가 一身을 搏結하는 것<sup>72</sup>이라고 보았고, 入門에서는 結脈은 陰이 成하기 때문에 형성되어 積滯가 있음이고, 結脈이 심하면 積도 심하고 結脈이 적으면 積도 微弱하다<sup>73</sup>고 하였다. 따라서 結

脈은 搏結과 積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6)促脈의 특징

陳士鐸은 促脈은 氣가 耗損된 것으로 勢가 널게 펼쳐지지 못하는 脈<sup>74</sup>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入門에서는 促脈은 陽이 成하고 陰은 不足한 것으로 보고 氣, 血, 痰, 飲食이 壅滯되어 毒이 된 것을 의미한다<sup>75</sup>고 보고 있다. 둘 다 促脈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氣가 耗損되었다는 陳士鐸의 견해가 促脈과 더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7)動脈의 특징

陳士鐸은 動脈은 動이 極하여 안정되지 못하는 脈<sup>76</sup>이라고 하였는데 入門에서도 動脈은 흔히 關部에 나타나고 數脈이 關上에 나타나 上下로 頭尾가 없고 동글동글 動搖하는 것을 動脈이라 한다고 하였다.

(28)靜脈의 특징

陳士鐸은 靜脈이 動脈과 相反된 의미로 보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아 변화하지 않고 편안하고 안정되어 福이 있는 脈<sup>77</sup>이라고 하였다.

(29)毛脈의 특징

陳士鐸은 毛脈이 깃털을 떨치는 형상이고, 火가 浮하였다가 다시 息하는 형상으로 여름과 가을 사이의 正脈이므로 여름에 毛脈이 있으면 生氣가 旺盛한 것이요, 가을에 毛脈이 있으면 旺氣가 衰하는 형상<sup>78</sup>이라고 하였다.

(30)石脈의 특징

陳士鐸은 石脈이란 숨겨진 것이 極에 이른 脈狀이고, 겨울의 正脈이고 겨울에 나타나면 寒冷의 의미가 있다<sup>79</sup>고 하였다.

(31)軟脈의 특징

陳士鐸은 軟脈이란 힘을 이기지 못하는 強健하지 못한 脈狀이고 軟脈이 보이면 이기지 못하는 것<sup>80</sup>이라

64) “長脈之現, 正氣之和也。有胃氣則脈自修長, 有從容和緩之象。”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5.

65) “長爲陽毒入臟深 熱閉陽明煩莫禁 坐臥不安身壯熱” 李梴 編註醫學入門 p.227.

66) “短脈者, 欲長而不能, 欲速而不達。因邪氣克犯正氣, 正負而邪勝也。”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5.

67) “短爲氣滯心腹痛 宿食內積三焦壅” 李梴 編註醫學入門 p.227.

68) “代脈之現, 正氣之衰, 不得不止, 以息其氣也。有痰氣之結, 壅隔不散, 亦現代脈者。然正氣不衰, 痰安能作祟, 使脈中止而不還乎。”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5.

69) “代脈必死臟氣絕 平人見此大不祥” 李梴 編註醫學入門 p.228.

70) “革脈來渾渾而濁亂, 至擊指者是, 蓋正氣之欲脫也。”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5.

71) “革乃虛寒相搏成 崩漏半產亡血精” 李梴 編註醫學入門 p.228.

72) “結脈其來則緩, 而時又現止, 是力不能不止也。明是正氣甚衰, 不敢與邪氣相鬪, 邪氣搏結于一身耳。”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5.

73) “結因陰成主有積 結甚積甚微則微” 李梴 編註醫學入門 p.228.

74) “促脈, 急遽之狀, 氣耗而勢難寬舒也。”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5.

75) “促脈陽成陰不足 氣血痰食壅爲毒” 李梴 編註醫學入門 p.227.

76) “動脈有不能安靜之勢, 動極生變也。”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5.

77) “靜脈與動相反, 不動則不變, 自亨寧靜之福矣。”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5.

78) “毛脈言如羽毛之拂體, 乃有餘之象, 火將浮而又息之狀, 夏秋之間之正脈也。在夏則生氣之旺也, 在秋則旺氣之衰也, 在他時則熱氣之盛也, 宜于活看。”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5.

79) “石脈乃沈脈之至藏之極也, 冬時正脈, 餘時見之爲寒冷矣。”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5.



고 말했다.

(32)堅脈의 특징

陳士鐸은 堅脈이란 단단한 狀으로 邪氣가 깊이 들어가 堅固하여 破하지 못하는 狀<sup>81)</sup>이라고 하였다.

(33)鉤脈의 특징

陳士鐸은 鉤脈이란 洪하지만 크지 않은 象이고, 胃脈이 和平하고 火가 旺盛하지 않고, 여름의 平脈이다<sup>82)</sup>고 하였다.

(34)躁脈의 특징

陳士鐸은 躁脈이란 動하는 것 같으나 動이 아니고, 數하는 것 같으나 數이 아니다. 또한 促한 것 같으나 促이 아니고 急한 것 같으나 急이 아니다. 躁脈에 幹枯함이 있으면 煩擾한 狀<sup>83)</sup>이라고 말하고 있다.

(35)搏脈의 특징

陳士鐸은 搏脈이란 擊指하는 것을 말하고 太過를 의미한다<sup>84)</sup>고 하였다.

(36)散脈의 특징

陳士鐸은 散脈이 머무르려 하나 머무르지 못하고, 존재하려고 하나 존재하지도 못하고 解索하는 脈狀<sup>85)</sup>이라고 하였다.

(37)絕脈의 특징

陳士鐸은 絕脈이 死亡時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脈으로 끊어지려 하나 끊어지지 못하고 접속하려 하나 접속도 잘 되지 못하는 脈<sup>86)</sup>이라고 하였다.

(38)平脈의 특징

陳士鐸은 平脈이란 浮하지만 심하게 浮하지 않고 沈하지만 심하게 沈하지 않고 數하지만 심하게 數하지 않고 遲하지만 심하게 遲하지 않은 脈으로 胃氣가 온

전한 脈으로 疾病이 없는 脈<sup>87)</sup>이라고 하였다.

6. 診察時 醫者が 취해야 할 자세

● 鬼眞君曰

鬼眞君은 脈의 平한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하며, 脈診은 平旦에 按指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平旦에 按指하게 되면 異法이 없게 되어, 氣의 甚淸한 것을 취하는 貴함이 있게 되고, 自然히 虛實이 쉽게 밝혀지며 盛衰가 쉽게 判別된다<sup>88)</sup>고 하였다.

● 陳士鐸曰

陳士鐸은 鬼眞君의 平旦에 脈을 취하여 甚淸한 것을 구한다는 醫者の 자세를 論한 것에 덧붙여 脈診方法의 기본이 되는 三部脈診의 순서에 대하여 論하였고, 또한 患者에 임하는 醫者の 태도와 자세에 대하여 論하였다.

1) 寸,關,尺 診脈 순서와 방법을 論하였다.

寸,關,尺 診脈 순서에 대해서는 左手의 寸脈을 먼저 하고, 다음으로 關脈 마지막으로 尺脈, 그 다음에는 같은 방법으로 右手의 寸,關,尺 순서로 診脈을 하고, 다시 三指를 일시에 눌러 관찰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平人의 無病한 脈을 알아볼 때에는 呼吸이 기준이 되는데, 一呼에 脈이 二動하고 一吸에 脈이 二動할 때 無病한 脈<sup>89)</sup>이라고 하였다.

2) 醫者の 調息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陳士鐸은 醫者の 調息에 대해서도 중시 여겼는데, 切脈시 먼저 醫師의 調息이 이루어진 후에 病人의 脈을 관찰할 수 있으므로 平日에 導引法을 배워 調息을 할 필요가 있다<sup>90)</sup>고 말했다. 즉, 醫師의 呼吸之間에 太

80) “軟脈不能剛健之狀, 明是力之不勝耳。”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5.

81) “堅脈至硬之狀, 邪氣深入, 牢不可破也。”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5.

82) “鉤脈洪而不大之象, 如鉤之有留也。乃胃脈和平, 火不盛而司其令, 夏日見之尤爲平脈也。”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5.

83) “躁脈似動而非動, 似數而非數, 似促而非促, 似急而非急也, 若有乾枯煩擾之狀。”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5.

84) “搏脈者, 擊指之謂也。各脈皆能擊指, 俱屬太過。”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5.

85) “散脈者, 卽解索之兆, 乃欲留而不能留, 欲存而不能存也。”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5.

86) “絕脈者, 言脈之將斷而未斷, 可續而不續也。死亡之時, 必現此脈。”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5.

87) “平脈者, 言各脈之得其平也。如浮不甚浮, 沈不甚沈, 遲不甚遲, 數不甚數耳。人現平脈, 多是胃氣之全也。胃氣無傷, 又寧有疾病哉。此脈之所以貴得平耳。”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5.

88) “脈嫌其絕, 脈貴其平。既知各脈之異同, 可斷諸症之常變。然而診脈必須得時, 要在日之平旦, 按指原無異法, 貴取氣之甚淸, 自然虛實易明, 盛衰易辨矣。”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5.

89) “切脈以呼吸爲準, 一呼脈二動, 一吸脈二動, 爲是平人無病之脈, 有餘不及皆病也。世人切脈, 多以三指齊按于寸,關,尺, 以候各脈, 焉得備觀其陰陽虛實邪正之分哉。必須先以一指觀其左寸, 後及左關, 又及左尺, 然後又及右寸, 又及右關, 又及右尺, 逐部分別, 再以三指準之, 則何異何同, 始了然于胸中。見浮言其風, 見沈言其積, 見遲言其痛, 見數言其熱, 自能陰陽莫逃, 邪正有別, 虛實不淆矣。”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3-64.

90) “切脈貴先調息, 吾息調而後可以察病人之息。蓋病人之息, 呼吸不到, 未有能調者也。倘醫者之息不平, 又何以知病人之息哉。故學醫者, 平日學導引之法, 則呼吸之間, 無太過不及, 自然下指之時息數分明, 可以察病人之脈也。” 柳長華 主編

過不及함이 없어야 下指할 때 호흡수를 분명히 할 수 있어 病人의 脈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左右 兩手の 各脈을 消息하여 판단한다.

모든 사람들의 脈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脈을 辨別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방법은 사람마다 左右 兩手の 各脈을 消息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三部를 하나하나 消息하여 특히 어느 부분이 다른가를 辨別하게 되면, 어느 經絡의 病人가를 판단할 수 있다<sup>91)</sup>고 하였다.

4) 天生이 陰脈인 경우 觀症을 해서 판단한다.

陳士鐸은 天生이 陰脈인 경우 脈이 나타나지 않고 숨어버려서 脈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런 경우에는 觀症을 하여 脈을 보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觀症에는 起居의 靜躁을 보는데 靜이면 陰이고, 躁는 陽으로 본다. 또한 飲食의 寒熱을 보고 寒을 좋아하면 熱한 것이고, 熱을 좋아하면 寒이다. 大小便의 燥濕短長을 보고 燥短하면 實症이고, 濕長하면 虛症이다. 그리고 口舌의 黃峭白滑을 보고 黃峭하면 邪가 盛한 것이고, 白滑하면 正氣가 衰한 것<sup>92)</sup>이다. 이것을 관찰하여 症候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 第二篇 諸脈을 綱과 紀로 區分

이 篇에서는 諸脈을 區分하여 浮,沈,遲,數,滑,澁,濡 7脈을 綱으로 삼고 나머지 31脈을 紀로 삼아, 두 가지 脈이 合하여져 나타난 脈狀을 통하여 病症을 살필 것을 論하였다. 또한 綱脈과 紀脈으로 이루어진 脈을 살필 때는 同中之異와 異中之同을 알아야 病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 1. 諸脈을 綱과 紀로 구분함

#### ● 鬼眞君曰

鬼眞君은 사람의 病이 變遷하는 것이 一定하지 않듯이, 脈도 形態가 다르기 때문에 病에 있어 六部脈에

前掲書 p.66.

91) “凡人之脈，多不相同，不可以此人之脈概論諸彼人也。看一人之脈，當取其左右兩手之各脈，一一而消息之，辨其何部獨異，乃斷何經之病，庶幾得之。” 柳長華 主編 前掲書 p.66.

92) “看脈必須看症，蓋症所以印證夫脈也。夫人之脈不同，有天生陰脈而不現之于皮毛之內，又將何處看脈？故必觀其症候之若何，而症候正難辨也。或者其起居之靜躁，靜爲陰而躁爲陽也。看其飲食之寒熱，喜寒爲熱而喜熱爲寒也。問其大小便之燥濕短長，燥短爲實而濕長爲虛也。辨其口舌之黃白峭滑，黃峭爲邪盛，而白滑爲正衰也。是觀症所以濟切脈之窮，而切脈所以輔觀症之妙耳。” 柳長華 主編 前掲書 p.67-68.

매번 다른 상태의 脈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두 가지 脈을 兼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諸脈을 綱과 紀로 구분하여 綱脈에 兼하여 나타나는 紀脈의 精微를 統論하고 난 후에 비로소 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하였다.<sup>93)</sup> 脈을 綱과 紀로 구분하여 綱脈과 紀脈이 兼하여 나타난다고 論한 것은 鬼眞君脈訣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 陳士鐸曰

陳士鐸은 鬼眞君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脈을 크게 浮,沈,遲,數,滑,澁,濡 7脈을 綱脈으로 하고 나머지 31脈을 紀脈으로 하여 두 가지 脈을 합하여 症을 論하고 藥을 쓸 수 있다고 하였다.

1) 綱脈과 紀脈을 합하여 症을 論한후 藥을 쓸 수 있다.

陳士鐸은 하나의 經絡중에 두 가지 脈이 兼하여 나타나는데, 脈을 크게 綱과 紀로 구분하고 綱脈에 紀脈을 합한 후에 비로소 症을 논할 수 있다고 하였다. 浮,沈,遲,數,滑,澁,濡 7脈을 綱脈으로 하고 나머지 31脈을 紀脈으로 하여 두 가지 脈을 합하여 본 후, 症을 알 수 있게 되고 藥을 써야 비로소 정당하다<sup>94)</sup>고 하였다.

2) 綱脈을 浮,沈,遲,數,滑,澁,濡 7脈만 취하게 된 이유

陳士鐸이 兼見하는 脈에서 단지 浮,沈,遲,數,滑,澁,濡의 7脈만을 취하고 나머지 31가지의 脈은 兼見한다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脈의 大綱이란 浮,沈,遲,數,滑,澁의 6字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大綱만을 거론하게 되면 나머지는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浮,沈,遲,數,滑,澁의 6脈 이외의 濡脈을 이끌어 그 兼見하는 것을 나타낸 것은 사람들이 나머지 脈을 변통하지 못하여 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할까 염려되 濡脈을 예를 들어 준 것일 뿐<sup>95)</sup>이라는 것이다.

93) “人身之病，變遷原非一致。人身之脈，紛紜必有殊形。故六部之中，每顯各異之狀；一經之內，常呈兼見之端。浮而弦，浮而數，多無定象；沈而細，沈而遲，不少同觀。必須統論其精微，始可獨斷其眞僞。” 柳長華 主編 前掲書 p.68.

94) “凡人之病，變遷不常，而脈亦因病殊形，必非一狀，大約一經之中必兼二脈以相見也。合二脈以論症，而症始出焉。合二脈以用藥，而藥始當焉。但二脈兼見甚多，不止浮沈遲數澁滑濡也。然苟知兼見之大旨，則以七脈爲綱，以餘脈爲紀，又何病之不可推測哉。” 柳長華 主編 前掲書 p.68.

95) “千態萬狀者，病也。千變萬化者，脈也。鬼眞君以三十八字盡脈之理，毋乃太簡乎。故又取兼見之脈以示世，似乎克盡其變矣。然而兼見之脈，止取浮沈遲數滑澁濡之七脈，而其餘三十一脈不言兼見，或疑其訣之不全，而立法之未善也，不知脈之大綱，而浮沈遲數澁滑之六字耳。舉其大綱，而餘可類推，又何必瑣細之盡告哉。吾意于浮沈遲數澁滑之外，引濡脈之兼見

## 2. 綱脈에 紀脈이 합하여 졌을 때의 병증에 대하여 논함

綱으로서 脈이 紀로서 脈과 兼했을때 나타나는 증상을 논하였다.

### ● 鬼眞君曰

1) 綱으로서 浮脈이 他脈을 兼했을 때

○ 浮脈이 滑脈을 兼하면 반드시 風痰이 旺盛한 것이다.

○ 浮脈이 大脈을 兼하면 氣血에 邪가 있음이라.

○ 浮脈이 遲脈을 兼하면 虛風으로 害가 있다.

○ 浮脈이 濡脈을 兼하면 濕氣가 침입한 것이다.

○ 浮脈이 細脈을 兼하면 血이 氣를 따라서 상승하는 것이다.

○ 浮脈이 洪脈을 兼하면 火가 氣를 얻어 더욱 왕성하게 된 것이다.

○ 浮脈이 芤脈을 兼하면 血泛한 것이다.

○ 浮脈이 緊脈을 兼하면 血을 무겁게 눌러 苦가 있음이다.

○ 浮脈이 急脈을 兼하면 반드시 上焦에 疼痛이 있다.

○ 浮脈이 弱脈을 兼하면 반드시 下部가 委靡<sup>96)</sup>하다.

○ 浮脈이 長脈을 兼하면 氣는 상승 하지만 正氣를 손상하지는 않는다.

○ 浮脈이 短脈을 兼하면 氣가 結하여 疏散하지 못하는 것이다.

○ 浮脈이 結脈을 兼하면 邪가 經絡之間에서 搏하는 것이다.

○ 浮脈이 革脈을 兼하면 正氣가 臟腑 내에서 脫한 것이다.

○ 浮脈이 代脈을 兼하면 邪가 胸膈部位에서 居하는 것이다.

○ 浮脈이 促脈을 兼하면 正氣가 營衛之中에서 傷한 것이다.

○ 浮脈이 動脈을 兼하면 氣가 變遷하고 있는 것이다.

○ 浮脈이 靜脈을 兼하면 氣가 장차 편안히 쉬려고 하는 것이다.

○ 浮脈이 毛脈을 兼하면 氣가 火를 얻어서 頭目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 浮脈이 躁脈을 兼하면 火가 氣로 인하여 咽喉로 上炎하는 것이다.

○ 浮脈이 鈎脈을 兼하면 氣가 升하면서 和한 것이다.

○ 浮脈이 搏脈을 兼하면 氣가 浮한 것이 극단에 이르는 것이다.

○ 浮脈이 軟脈을 兼하면 氣가 虛한 것이 심하다.

○ 浮脈이 散脈을 兼하면 氣가 收斂되지 못하는 것이다.

○ 浮脈이 平脈을 兼하면 氣가 곧 無病한 것이다. 97)

2) 綱으로서 沈脈이 他脈을 兼했을 때

○ 沈而兼遲하면 寒虛가 지극한 것이다.

○ 沈而兼澁하면 鬱滯가 심한 것이다.

○ 沈而兼滑하면 寒痰이 풀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 沈而兼小하면 冷氣가 發하지 못하는 것이다.

○ 沈而兼實하면 氣가 寒을 만나서 떨어져 풀리지 못하는 것이다.

○ 沈而兼微하면 精이 冷으로 인하여 脫하려고 하는 것이다.

○ 沈而兼細하면 血이 陰을 만나서 응결된 象이다.

○ 沈而兼緊하면 邪가 寒冷한 것을 乘하고 있는 境 界이다.

○ 沈而兼急하면 小腹이 寒邪로 인해 痛증 이 있다.

○ 沈而兼濡하면 兩足이 대부분 水腫으로 침입한 것이다.

○ 沈而兼長하면 氣는 陷하였으나 正氣는 손상되지 않았다.

○ 沈而兼短하면 精이 冷하여 장차 흩어지지 못한 다.

○ 沈而兼結하면 邪가 至陰을 搏한다.

○ 沈而兼革하면 髓海에서 脫하는 것이다.

○ 沈而兼代하면 命門이 장차 끊어지려는 가히 危急한 症이다.

○ 沈而兼促하면 元陽이 脫하려고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다.

○ 沈而兼靜하면 陽은 寒하지만 능히 지킨다.

97) “故浮而兼滑也，必是風痰之盛；浮而兼大也，決爲氣血之邪；浮而兼遲也，虛風之害；浮而兼濡也，濕氣之侵；浮而兼細也，血隨氣而上升；浮而兼洪也，火得氣而更旺；浮而兼芤，定爲血泛之虞；浮而兼緊，決至邪重之苦；浮而兼急，必疼痛于上焦；浮而兼弱，必委靡于下部；浮而兼長，氣雖升而不傷其正；浮而兼短，氣欲結而難散其邪；浮而兼結，邪搏于經絡之間；浮而兼革，正脫于臟腑之內；浮而兼代，邪居于胸膈之處；浮而兼促，正傷于營衛之中；浮而兼動，氣在變遷；浮而兼靜，氣將寧息；浮而兼毛，氣得火而上勝于頭目；浮而兼躁，火因氣而上炎于咽喉；浮而兼鈎，氣升之和；浮而兼搏，氣浮之極；浮而兼軟，氣虛之甚；浮而兼散，氣不可收；浮而兼平，氣乃無病。” 柳長華 主編 前掲書 p.68.

者，亦可無事重宣耳。 鬼眞君惟恐人之拘執而不通也，故略學一濡脈以訓世耳。” 柳長華 主編 前掲書 p.68.

96) 委靡：약함, 쇠약함.

- 沈而兼石하면 陰固하여 옮겨지지 않는다.
- 沈而兼軟하면 腹이 冷하여 痛증으로 고초를 겪는다.
- 沈而兼散하면 精이 寒하고 絶하여 위태롭다. 98)

3) 綱으로서 濡脈이 他脈을 兼했을 때

- 濡而兼遲하면 濕하고 虛를 범한다.
- 濡而兼滑하면 水에서 痰이 성하게 된 것이다.
- 濡而兼大하면 濕이 血이 耗損됨으로 인하여 相侵한 것이다.
- 濡而兼小하면 水이 氣衰하여 相犯한 것이다.
- 濡而兼弦하면 風水의 患이 깊다.
- 濡而兼芤하면 痰血의 症이 急하다.
- 濡而兼長하면 水濕이 쉽게 消散된다.
- 濡而兼革하면 水濕이 消散되기 어렵다.
- 濡而兼動하면 水가 汎濫하며 妄성하다.
- 濡而兼靜이면 濕이 많이 浸潤하는 상태다.
- 濡而兼軟이면 水邪가 虛를 타고 相生한다.
- 濡而兼散이면 正氣가 濕을 따라서 脫하려 하는 것이다.99)

4) 綱으로서 遲脈이 他脈을 兼했을 때

- 遲而兼脈이면 鬱滯된 중에 약해진 것이다.
- 遲而兼滑이면 안에 濕이 있어 虛를 자초한 것이다.
- 遲而兼大이면 氣血이 모두 건조한 것이다.
- 遲而兼小이면 精神이 홀로 외로운 상태이다.
- 遲而兼微이면 虛寒한 氣가 있다.
- 遲而兼細이면 匱乏한 몸이다.
- 遲而兼弦이면 內傷으로 風이 있다.
- 遲而兼芤이면 內傷으로 血病이라.
- 遲而兼長이면 病을 두려워할 필요없다.
- 遲而兼短이면 症이 實하여 근심이다.
- 遲而兼代이면 脾胃가 손상된 것이다.
- 遲而兼革이면 精華를 소산시킨 것이다.

98) “沈而兼遲也，寒虛之至；沈而兼澁也，鬱滯之深；沈而兼滑也，寒痰之不舒；沈而兼小也，冷氣之難發；沈而兼實也，氣得寒而不揚；沈而兼微也，精因冷而欲脫；沈而兼細也，血逢陰凝之象；沈而兼緊也，邪乘寒冷之徵；沈而兼急，小腹有寒邪之痛；沈而兼濡，兩足多水脹之侵；沈而兼長，氣陷而正尚未傷；沈而兼短，精冷而邪將不決；沈而兼結，邪搏于至陰；沈而兼革，正脫于髓海；沈而兼代，命門將絕而可危；沈而兼促，元陽欲脫而可畏；沈而兼靜，陽寒能守；沈而兼石，陰固不遷；沈而兼軟，腹冷有痛楚之苦；沈而兼散，精寒有涸絕之危。”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8.

99) “更有濡遲兼見，無非濕犯乎虛；濡滑同來，尤其是痰成乎水；濡中兼大，濕因血耗以相侵；濡中兼小，水趁氣衰以相犯；濡而兼弦，風水之患深；濡而兼芤，痰血之症急；濡而兼長，水濕易散；濡而兼革，水濕難消；濡而兼動，水有泛濫之盛；濡而兼靜，濕多侵潤之徵；濡而兼軟，水邪乘虛而相生；濡而兼散，正氣隨濕而欲脫。”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8.

- 遲而兼石이면 氣가 寒冷하여 장차 骨로 들어가려는 것이다.

- 遲而兼軟이면 心을 養할 血이 衰少하게 된 것이다.

- 遲而兼散이면 寒이 極에 이르러 氣가 飛한다.

- 遲而兼靜이면 陰이 微微하여 精이 단단하다. 100)

5) 綱으로서 數脈이 他脈을 兼했을 때

- 數而兼滑하면 痰으로 亢炎한다.
- 數而兼大하면 火가 끓어오른다.
- 數而兼實하면 氣가 熱로 인해 막혀 있다.
- 數而兼弦하면 風이 火를 조장한다.
- 數而兼洪하면 熱이 燎原의 妄성함을 가지고 있다.
- 數而兼繁하면 邪가 붕화처럼 전파되는 듯하다.
- 數而兼芤하면 血을 吐하며 미친 듯하다.
- 數而兼代하면 身體가 喪하게 되는 것이 빠르다.
- 數而兼革하면 陽이 달리어 나가게 된다.
- 數而兼促하면 正氣가 사라져 염려하게 된다.
- 數而兼動하면 發狂으로 변하게 될까 두렵다.
- 數而兼毛하면 대부분 消渴症으로 된다.
- 數而兼搏하면 火刑金하여 喉舌에 진액이 없다.
- 數而兼躁하면 火가 心을 태워서 脾胃도 불꽃에 휩싸인다.101)

6) 綱으로서 澁脈이 他脈을 兼했을 때

- 澁中兼小이면 氣血이 虧損이 되고 志가 鬱滯되어 펼쳐지지 못한다.
- 澁中兼實이면 氣血이 막혀 思想이 도달하기 어렵다.
- 澁中兼微이면 氣가 寒하여 滯가 된다.
- 澁中兼細이면 血이 적어서 근심이 된다.
- 澁中兼洪이면 鬱怒가 풀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 澁中兼急이면 鬱滯로 인한 痛症을 어찌 금할 수 없다.
- 澁中兼結이면 兩脇을 邪가 두드려 친다.
- 澁中兼促이면 正氣가 고갈되어 半表의 사이에 있다.

100) “遲而兼澁，鬱中以成弱；遲而兼滑，濕內以招虛；遲而兼大，氣血皆居乾燥；遲而兼小，精神必至伶仃；遲而兼微，虛寒之氣；遲而兼細，匱乏之身；遲而兼弦，內傷之風；遲而兼芤，內傷之血；遲而兼長，病不足畏；遲而兼短，症實可愁；遲而兼代，必至損傷脾胃；遲而兼革，定然決散精華；遲而兼石，氣寒將侵于骨；遲而兼軟，血衰少養乎心；遲而兼散，寒極而氣飛；遲而兼靜，陰微而精固。”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8.

101) “數而兼滑，亢炎之痰；數而兼大，沸騰之火；數而兼實，氣壅于熱；數而兼弦，火助乎風；數而兼洪，熱有燎原之盛；數而兼緊，邪有烽火之傳；數而兼芤，吐血何狂；數而兼代，喪軀必速；數而兼革，走陽可許；數而兼促，消正堪憂；數而兼動，恐有發狂之變；數而兼毛，定多消渴之成；數而兼搏，火刑金而喉舌無津；數而兼躁，火燒心而脾胃生焰。”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8.

다.

○ 澁中兼革이면 氣가 腎臟, 肝臟에서 빠져나가려고 한다.

○ 澁中兼代이면 脾胃의 氣가 장차 끊어지려고 한다.

○ 澁中兼石이면 寒이 鬱滯되어 풀어지지 못한다.

○ 澁中兼堅이면 風이 鬱滯되어 출하지 못한다.

○ 澁中兼搏이면 鬱滯가 甚하여 풀어지지 못한다.

○ 澁中兼靜이면 鬱滯가 極에 이르니 옮겨질 수 없다.<sup>102)</sup>

7) 綱으로서 滑脈이 他脈을 겸했을 때

○ 滑而兼大이면 痰이 血을 빌어서 災殃이 된 것이다.

○ 滑而兼小이면 痰이 氣를 빌어서 祟하는 것이다.

○ 滑而兼實이면 痰中에서 氣가 막힌 것이다.

○ 滑而兼微이면 胸部 위에서 痰이 寒冷하다.

○ 滑而兼細이면 痰은 왕성하여 血은 枯하다.

○ 滑而兼弦이면 水가 왕성하여 風이 急하다.

○ 滑而兼洪이면 濕熱이 무리를 이루었다.

○ 滑而兼芤이면 痰血로 인하여 病이 되었다.

○ 滑而兼緊이면 邪가 濕을 얻어서 위세를 더하는 것이다.

○ 滑而兼急이면 邪가 濕을 타고서 痛증이 증가된 다.

○ 滑而兼濡이면 濕이 왕성하여 邪가 脹으로 될까 두렵다.

○ 滑而兼革이면 水가 방해가 많아 正氣가 收斂되기 어렵다.

○ 滑而兼動이면 水가 蓄積이 되어 腸과 腹部에 소리가 난다.

○ 滑而兼毛이면 火가 끊어 痰涎을 토하게 한다.

○ 滑而兼軟이면 濕痰이 蓄積되어 소멸되지 않는다.

○ 滑而兼堅이면 濕邪가 머물러 흠어지지 않는다.

○ 滑而兼搏이면 痰을 한 동이 기울어지게 토해낸 다.

○ 滑而兼散이면 水가 돌 위를 달리다 무너지는 듯 하다.<sup>103)</sup>

102) “澁中兼小, 氣血虧而鬱志莫伸; 澁中兼實, 氣血壅而思想難遂; 澁中兼微, 氣寒而滯; 澁中兼細, 血少而愁; 澁中兼洪, 鬱怒不解; 澁中兼急, 鬱痛安禁; 澁中兼結, 邪搏于兩脇之間; 澁中兼促, 正虧于半表之際; 澁中兼革, 氣欲脫于腎肝; 澁中兼代, 氣將絕于脾胃; 澁中兼石, 寒鬱不宜; 澁中兼堅, 風鬱難出; 澁中兼搏, 鬱甚莫解; 澁中兼靜, 鬱極安移.” 柳長華 主編 前掲書 p.68.

103) “滑而兼大, 痰藉血以爲災; 滑而兼小, 痰借氣而作祟; 滑而兼實, 氣塞于痰中; 滑而兼微, 痰冷于胸次; 滑而兼細, 痰旺而血枯; 滑而兼弦, 水盛而風急; 滑而兼洪, 濕熱成黨; 滑而兼芤, 痰血爲疴; 滑而兼緊, 邪得濕以助威; 滑而兼急, 邪乘濕而增痛; 滑而兼濡, 濕盛恐邪氣之添脈; 滑而兼革, 水多防正氣之難收; 滑而兼

● 陳士鐸曰

陳士鐸은 鬼眞君과 달리 脈을 綱과 紀가 아닌 綱과 緯로 구분하였지만 紀과 緯는 큰 의미의 차이는 없다. 陳士鐸은 綱脈과 緯脈을 통해 脈의 同中之異와 異中之同을 설명하였다.

1) 綱脈과 緯脈을 통해 同中之異와 異中之同을 살핀 다.

陳士鐸은 兼見하는 脈을 살필 때는 綱이 되는 7脈을 위주로 하여 緯가 되는 31脈과 同中之異, 異中之同을 관찰하면 된다<sup>104)</sup>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七脈을 綱으로 삼고 兼脈을 緯로 삼아서 同中之異와 異中之同을 살핀다는 것이다.

2) 同中之異와 異中之同의 意義를 論하였다.

同中之異는 綱脈은 한 가지인데 紀脈에 있어 大小虛實의 差름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異中之同은 紀脈에 大小虛實이 나타나는 듯하지만 결국 한 가지 綱脈으로 귀결된다는 것<sup>105)</sup>이다. 예를 들어 同中之異라는 것은 沈脈은 한가지인데 遲數澁滑의 差름이 있다는 것이다. 異中之同이라는 것은 寸,關,尺에 각각 遲數澁滑의 서로 다른 脈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沈脈은 한 가지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3) 同中之異와 異中之同의 重要性을 말했다.

陳士鐸은 兩脈이 兼하여 나타나 差름이 있더라도 脈의 同中之異를 알게 되면 그 異를 치료하고, 異中之同을 알게 되면 그 同을 치료하게 되면 病은 스스로 쉽게 치료되는 것을 볼 수 있다<sup>106)</sup>고 말했다.

3. 平緩한 脈을 중시함

動, 水畜致腸腹之鳴; 滑而兼毛, 火沸召痰涎之吐; 滑而兼軟, 濕痰積而不消; 滑而兼堅, 濕邪留而不散; 滑而兼搏, 痰有傾盆之嘔; 滑而兼散, 水如走石之崩.” 柳長華 主編 前掲書 p.68.

104) “兼見之脈, 須先看七脈爲主, 既得七脈, 而後辨其兼見之形, 則同中之異與異中之同, 無難細得也, 以七脈爲綱, 以兼見爲緯, 實切脈之權輿也.” 柳長華 主編 前掲書 p.68.

105) “同中之異者, 如同是浮脈, 何以有大小虛實之異也; 如同是沈脈, 何以有遲數澁滑之異也; 異中之同者, 如寸,關,尺各現大小虛實之異, 而浮脈則同也; 上中下各現遲數澁滑之異, 而沈脈則同也. 知其同中之異, 則竟治其異. 知其異中之同, 則不必治其同. 于此消息, 何患脈理之不精哉.” 柳長華 主編 前掲書 p.68.

106) “脈有同中之異, 亦有異中之同. 同是浮脈, 而何以有各脈之異; 同是沈脈, 而何以有各脈之殊. 蓋脈無一定之形, 必兼兩脈而并見也. 兩脈既然并見, 合兩脈以治一病, 自易見功. 然而兩脈之現, 必察其同異. 知其同中之異, 竟治其異而不必顧其同; 知其異中之同, 竟治其同而不必顧其異. 從此消息, 醫道烏得不神哉.” 柳長華 主編 前掲書 p.68.

● 鬼眞君曰

鬼眞君은 7가지 綱脈 외에 다른 脈은 가히 유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脈에 있어 脾胃의 氣가 요체가 되고, 平緩한 脈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여 脈을 손으로 눌렀을 때 고르게 편안히 안정되는 平緩한 脈이 보이면 거의 藥物을 써서 가히 모두 강건하게 된다고 하였다.<sup>107)</sup>

第三篇 左右 寸,關,尺의 脈狀과 症候

이 篇에서는 脈診時 五臟七腑의 病은 左右 寸,關,尺에 나타난 脈狀에 의거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診脈時 寸,關,尺을 나누어 관찰하고 합하여 관찰하여야 하는 意義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三部脈을 脈診時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침 없이 總括하여 관찰하여야 함과 脈에서 長脈과 緩脈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1. 五臟七腑의 病症은 左右 寸,關,尺에 의거하여 함

● 鬼眞君曰

鬼眞君은 五臟七腑의 病은 寸,關,尺에 의거하여 정미롭게 분석해야 현묘한 것까지 알 수 있을 것이다<sup>108)</sup>고 말하고 있다. 寸,關,尺은 五臟七腑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 陳士鐸曰

陳士鐸은 寸,關,尺의 범위를 上中下, 天地人으로 넓게 보아 五臟七腑를 論하였다. 또한 五臟七腑 뿐만 아니라 신체부위도 上中下로 나누어서 寸,關,尺에 配屬하였다.

1) 寸,關,尺의 범위를 上中下, 天地人으로 넓게 보았다.

陳士鐸은 寸,關,尺이란 上中下를 나누는 것으로 心肺는 上에 居하니 寸을 관찰하며 天을 본받는 것이요, 肝脾는 中에 居하니 關을 관찰하여 人을 본받음이며, 腎은 下에 居하니 尺으로 관찰하여 地를 본받는 것<sup>109)</sup>

107) “餘脈俱可類推, 各經正當細晰. 總以脾胃之氣爲要, 更以平緩之脈爲先. 倘下指之時, 均有寧靜之致, 庶幾藥餌之用, 可許康健之祥矣.”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9.

108) “五臟之病, 必以寸,關,尺爲憑; 七腑之症, 亦以寸,關,尺爲據. 然不分晰其精微, 又怎能盡知其玄妙.”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0.

109) “寸,關,尺分上中下也. 心肺居上而以寸觀之, 象天也; 肝脾居

이라고 하였다. 즉, 五臟을 배속하는데 있어 寸,關,尺의 범위를 넓혀 上中下, 天地人으로 보고 天地人을 합하여 볼 때 醫를 논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五臟七腑 외에 신체부위도 上中下로 나누어서 寸,關,尺에 배속

그리고 五臟七腑 외에 신체부위도 上中下로 나누어서 寸,關,尺에 배속하였는데 膻中, 胸脘, 咽喉, 膈膜, 股膝 등의 신체부위를 上中下로 나누어 寸,關,尺에 배속시키고, 또한 上焦, 中焦, 下焦를 차례대로 寸,關,尺에 배속시켰다.<sup>110)</sup>

2. 左右寸口에 나타난 脈에 따른 症候

左右寸口, 左右關中, 左右尺下에서 언급한 脈은 총 33種으로 陳士鐸이 論한 38脈에서 長脈, 緩脈, 靜脈, 軟脈, 絕脈, 平脈이 빠지고 微脈이 더해진 것이다. 鬼眞君은 長脈과 緩脈은 無病한 脈이라고 하여서 제외되었고, 靜脈은 動脈과, 軟脈은 堅脈과 대구를 맞춰진 脈일 뿐 증상과 관련된 의미는 없다고 본 것이다. 絕脈과 平脈도 마찬가지로 鬼眞君은 언급하지 않았다.

● 鬼眞君曰

○ 浮

左寸이 浮脈이면 風熱이 위로 올라와 頭疼이 나며, 右寸이 浮脈이면 咽喉가 乾燥하여 코가 막힌다<sup>111)</sup>고 하였다.

○ 芤

左寸이 芤脈이면 胸中에 血이 머무르지 못하고 嘔吐가 나며, 右寸이 芤脈이면 胃에 瘀血이 많아서 痛疼이 있다<sup>112)</sup>고 하였다.

○ 滑

左寸이 滑脈이면 熱痰이 心으로 들어가 혀가 굳어지

中而以關觀之, 象人也, 腎居下而以尺觀之, 象地也. 醫道必合天地人以論醫, 則醫無剩義; 脈訣亦必合天地人以示法, 則法無遁情. 非好作廣大之語也, 實有不如此, 則其法爲不備耳.”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110) “脈分三部, 上寸也, 中關也, 下尺也, 寸之內又分左右, 左寸候心, 而包絡顛中統其內, 右寸候肺, 而胸脘咽喉統其內. 關之內又分左右, 左關候肝, 而膈脇膈則統其內, 右關候脾, 而胃則統其內. 尺之內又分左右, 左尺候腎之水, 而小腸膀胱小腹股膝統其內, 右尺候腎之火, 而大腸腰口脛胛統其內. 三焦有上焦, 中焦, 下焦之異, 上焦屬於寸, 中焦屬於關, 下焦屬於尺. 命門爲十二經之主, 不屬於右腎, 而不得不候之于右腎也. 部位既明, 切脈自無疑.”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0.

111) “左寸見浮, 風熱上越而頭疼; 右寸見浮, 咽喉中燥而鼻塞.”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0.

112) “左寸見芤, 胸難藏血而嘔吐; 右寸見芤, 胃多瘀血而痛疼.”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0.

며, 右寸이 滑脈이면 熱痰이 肺로 들어가 피부가 훼손되어진다<sup>113)</sup>고 하였다.

○ 實

左寸이 實脈이면 火가 心을 태워서 얼굴이 붉어지고, 右寸이 實脈이면 火가 胃를 생하여 唾液이 乾燥하게 한다<sup>114)</sup>고 하였다.

○ 弦

左寸이 弦脈이면 風이 몸으로 들어가 頭痛이 되며, 右寸이 弦脈이면 風이 腸으로 들어가 筋攣이 된다<sup>115)</sup>고 하였다.

○ 緊

左寸에 緊이 나타나면 邪가 왕성하여 心痛하며, 右寸에 緊이 나타나면 氣로 인해 기침하여 肺가 傷한다<sup>116)</sup>고 하였다.

○ 洪

左寸에 洪脈이 나타나면 心胸 부위가 熱悶으로 타오르는 것이며, 右寸에 洪脈이 나타나면 頭腦가 炎蒸으로 생겨 고초를 겪는다<sup>117)</sup>고 하였다.

○ 微

左寸에 微脈이 나타나면 心寒으로 약하여 말을 못하며, 右寸에 微脈이 나타나면 氣冷으로 무너져 崩陷함을 면하지 못한다<sup>118)</sup>고 하였다.

○ 沈

左寸에 沈脈이 나타나면 心君이 相火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며, 右寸에 沈脈이 나타나면 肺金에 寒氣가 침입하였다<sup>119)</sup>고 하였다.

○ 澁

左寸에 澁脈이 나타나면 心脈에 火가 울체되어 풀리지 못한 것이며, 右寸에 澁脈이 나타나면 肺金에 金이 울체되어 達하지 못한다<sup>120)</sup>고 하였다.

○ 遲

左寸에 遲脈이 나타나면 膻中이 虛乏하여 心을 호위하지 못한 것이며, 右寸에 遲脈이 나타나면 上焦가 손상되어서 氣를 생하기 어렵게 된다<sup>121)</sup>고 하였다.

○ 伏

左寸에 伏脈이 나타나면 氣가 膈구리 사이에 숨어 있으며, 右寸에 伏脈이 나타나면 氣가 腕에 적체되어 있다<sup>122)</sup>고 하였다.

○ 濡

左寸에 濡脈이 보이면 膀胱에 水가 축적이 되어 소산되지 않으며, 右寸에 濡脈이 보이면 皮毛에서 汗으로 疎泄되는 것이 그치지 않는다<sup>123)</sup>고 하였다.

○ 弱

左寸에 弱脈이 나타나면 心을 養할 血이 없으며, 右寸에 弱脈이 나타나면 胃를 생하는 氣가 결핍이 된 것이다<sup>124)</sup>고 하였다.

○ 大

左寸에 大脈이 보이면 心經의 血이 건조하여 怔忡이 있으며, 右寸에 大脈이 보이면 肺經의 血이 건조하여 閉結이 된다<sup>125)</sup>고 하였다.

○ 小

左寸에 小脈이 보이면 驚悸가 때로 생겨나고, 右寸에 小脈이 보이면 怯弱이 날로 심하여 진다<sup>126)</sup>고 하였다.

○ 虛

左寸에 虛脈이 보이면 心中이 恍惚하고, 右寸에 虛脈이 보이면 胃內가 衰微한다<sup>127)</sup>고 하였다.

○ 細

左寸에 細脈이 보이면 運行하는 일이 缺乏되어 있는 것이며, 右寸에 細脈이 보이면 言語에 神이 없다<sup>128)</sup>고 하였다.

○ 微

左寸에 微脈이 보이면 包絡에 寒邪가 침입한 것이며, 右寸에 微脈이 보이면 胸腕에 陰氣가 들어간 것이다<sup>129)</sup>고 하였다.

○ 急

113) “左寸見滑，熱痰入心而舌強；右寸見滑，熱痰侵肺而皮折。”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0.

114) “左寸見實，火焚心而面赤；右寸見實，火生胃而唾乾。”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0.

115) “左寸見弦，風入體必多頭痛；右寸見弦，風入腸定有筋攣。”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0.

116) “左寸見緊，邪盛而心痛；右寸見緊，氣嗽而肺傷。”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0.

117) “左寸見洪，心胸起熱悶之燒；右寸見洪，頭腦生炎蒸之楚。”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0.

118) “左寸見微，心寒而虛弱何辭；右寸見微，氣冷而崩陷難免。”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0.

119) “左寸見沈，心君失相火之助；右寸見沈，肺金召寒氣之侵。”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0.

120) “左寸見澁，心脈火鬱而未舒；右寸見澁，肺金鬱而莫達。”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0.

121) “左寸見遲，膻中虛乏而難以衛心；右寸見遲，上焦損傷而難以生氣。”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0.

122) “左寸見伏，氣匿于脇間；右寸見伏，氣積于腕內。”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0.

123) “左寸見濡，膀胱水畜而不消；右寸見濡，皮毛汗泄而无止。”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0.

124) “左寸見弱，無血以養心；右寸見弱，乏氣以生胃。”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0.

125) “左寸見大，心經血燥而怔忡；右寸見大，肺經血乾而閉結。”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0.

126) “左寸見小，驚悸時生；右寸見小，怯弱日甚。”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0.

127) “左寸見虛，心中恍惚；右寸見虛，胃內衰微。”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0.

128) “左寸見細，運行乏力；右寸見細，言語無神。”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0.

129) “左寸見微，包絡有寒邪之入；右寸見微，胸腕有陰氣之招。”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0.

左寸에 急脈이 보이면 心疼을 면하지 못하며, 右寸에 急脈이 보이면 喉痛이 안정되지 못한다<sup>130)</sup>고 하였다.

○ 短

左寸에 短脈이 보이면 三焦之氣가 自怯하며, 右寸에 短脈이 보이면 宿食으로 소화되지 못한것이다<sup>131)</sup>고 하였다.

○ 代

左寸에 代脈이 보이면 心痛을 의심하며, 右寸에 代脈이 보이면 痰塞을 막을 수 없다<sup>132)</sup>고 하였다.

○ 結

左寸에 結脈이 보이면 邪가 心包를 두드리며, 右寸에 結脈이 보이면 邪가 胃脘에 잠복해 있다<sup>133)</sup>고 하였다.

○ 促

左寸에 促脈이 보이면 積聚로 인하여 번민이 있으며, 右寸에 促脈이 보이면 留滯로 滿하게 된다<sup>134)</sup>고 하였다.

○ 革

左寸에 革脈이 보이면 心氣가 산만하여 수렴되지 못하며, 右寸에 革脈이 보이면 肺氣가 飛越하여 돌아오지 못한다<sup>135)</sup>고 하였다.

○ 動

左寸에 動脈이 보이면 자식을 孕胎하여 즐거우며, 右寸에 動脈이 보이면 飲食으로 傷氣된 징조다<sup>136)</sup>고 하였다.

○ 毛

左寸에 毛脈이 보이면 心火가 動하여 肺金을 극하며, 右寸에 毛脈이 보이면 肺火가 일어나 肝木을 克한다<sup>137)</sup>고 하였다.

○ 鉤

左寸에 鉤脈이 보이면 心氣가 편안하고 夢魂이 편안하며, 右寸에 鉤脈이 보이면 肺氣가 清肅하여 膀胱이 통하게 된다<sup>138)</sup>고 하였다.

130) “左寸見急, 心疼不免; 右寸見急, 喉痛安辭.”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0.

131) “左寸見短, 三焦之氣自怯; 右寸見短, 再宿之食難消.”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0.

132) “左寸見代, 心痛勿訝; 右寸見代, 痰塞何妨.”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0.

133) “左寸見結, 邪搏于心包; 右寸見結, 邪蟠于胃脘.”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0.

134) “左寸見促, 積聚有煩悶之苦; 右寸見促, 留滯與痞滿之憂.”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0.

135) “左寸見革, 心氣散漫而不收; 右寸見革, 肺氣飛越而不返.”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0.

136) “左寸見動, 歡娛女子之祥; 右寸見動, 飲食傷氣之兆.”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0.

137) “左寸見毛, 心火動而將刑肺金; 右寸見毛, 肺火起而將克肝木.”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0.

○ 堅

左寸에 堅脈이 보이면 邪가 心을 침범하여 소리를 지르며, 右寸에 堅脈이 보이면 邪가 肺를 침범하여 咳嗽하게 된다<sup>139)</sup>고 하였다.

○ 躁

左寸에 躁脈이 보이면 神을 養할 血이 없으며, 右寸에 躁脈이 보이면 魄을 안정시킬 精이 없다<sup>140)</sup>고 하였다.

○ 搏

左寸에 搏脈이 보이면 火가 지나쳐서 心을 태우며, 右寸에 搏脈이 보이면 火가 지나쳐서 肺를 태운다<sup>141)</sup>고 하였다.

○ 石

左寸에 石脈이 보이면 陰寒이 膻中을 두드리게 되며, 右寸에 石脈이 보이면 冷氣가 腕內를 謁박하여 居한다<sup>142)</sup>고 하였다.

○ 散

左寸에 散脈이 보이면 心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이고, 右寸에 散脈이 보이면 肺가 出하기만 하고 入하지 못한다<sup>143)</sup>고 하였다.

### 3. 左右關中에 나타난 脈에 따른 症候

● 鬼眞君曰

○ 浮

左關에 浮脈이 보이면 肝이 風을 범하여 두 눈이 붉게 충혈되고, 右關에 浮脈이 보이면 胃에 風이 들어가 갈증이 생긴다<sup>144)</sup>고 하였다.

○ 芤

左關에 芤脈이 보이면 肝이 傷하여 失血된 것이며, 右關에 芤脈이 보이면 腸毒으로 便膿이 된다<sup>145)</sup>고 하였다.

○ 滑

138) “左寸見鉤, 心氣安而夢魂適; 右寸見鉤, 肺氣肅而膀胱通.”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139) “左寸見堅, 邪犯心而呼號; 右寸見堅, 邪侵肺而咳嗽.”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140) “左寸見躁, 無血養神; 右寸見躁, 無精定魄.”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141) “左寸見搏, 火太過而焚心; 右寸見搏, 火太過而燦肺.”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142) “左寸見石, 陰寒直搗于膻中; 右寸見石, 冷氣逼居于腕內.”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143) “左寸見散, 心有無可奈何之象; 右寸見散, 肺有但出無入之悲.”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144) “左關見浮, 肝犯風而眼赤; 右關見浮, 胃入風而渴生.”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145) “左關見芤, 必肝傷而失血; 右關見芤, 必腸毒而便膿.”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左關에 滑脈이 보이면 頭目이 腫痛하여 심하고, 右關에 滑脈이 보이면 脾胃가 熱로 인해 고초가 심하다<sup>146)</sup>고 하였다.

○ 實

左關에 實脈이 보이면 咳嗽, 積聚의 징후이며, 右關에 實脈이 보이면 心腹이 痛症이 많은 것이다<sup>147)</sup>고 하였다.

○ 弦

左關에 弦脈이 보이면 肝이 왕성하여 風을 생하며, 右關에 弦脈이 보이면 脾가 붕괴되어 食事を 하지 못한다<sup>148)</sup>고 하였다.

○ 緊

左關에 緊脈이 보이면 筋脈이 急拘하며, 右關에 緊脈이 보이면 嘔吐한다<sup>149)</sup>고 하였다.

○ 洪

左關에 洪脈이 보이면 두 눈에 花가 생기고, 右關에 洪脈이 보이면 心腹이 結痛한다<sup>150)</sup>고 하였다.

○ 沈

左關에 沈脈이 보이면 陰寒으로 癖積가 되며, 右關에 沈脈이 보이면 冷氣로 인하여 편안하지 못하다<sup>151)</sup>고 하였다.

○ 澁

左關에 澁脈이 보이면 風邪가 寒閉하여 氣가 울체되어 남아 있으며, 右關에 澁脈이 보이면 飲食으로 傷殘하여 血虛하여 부족하다<sup>152)</sup>고 하였다.

○ 遲

左關에 遲脈이 보이면 兩脇부위에 寒이 많으며, 右關에 遲脈이 보이면 中焦가 冷하다<sup>153)</sup>고 하였다.

○ 伏

左關에 伏脈이 보이면 關格收藏하며, 右關에 伏脈이 보이면 癰亂吐瀉가 된다<sup>154)</sup>고 하였다.

○ 濡

左關에 濡脈이 보이면 痺症이 장차 되려고 하며, 右關에 濡脈이 보이면 水臌됨을 꺼린다<sup>155)</sup>고 하였다.

○ 弱

左關에 弱脈이 보이면 筋痿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右關에 弱脈이 보이면 氣가 短하여 補하여야 한다<sup>156)</sup>고 하였다.

○ 數

左關에 數脈이 보이면 肝火가 왕성하여 두 눈이 붉어지며, 右關에 數脈이 보이면 胃火가 왕성하여 입에 갈증이 난다<sup>157)</sup>고 하였다.

○ 大

左關에 大脈이 보이면 怒氣로 肝을 손상하고, 右關에 大脈이 보이면 狂陽으로 胃를 傷한다<sup>158)</sup>고 하였다.

○ 小

左關에 小脈이 보이면 肝, 膽의 기운이 衰하고, 右關에 小脈이 보이면 脾, 胃의 血이 少하다<sup>159)</sup>고 하였다.

○ 虛

左關에 虛脈이 보이면 반드시 血을 더하여야 하고, 右關에 虛脈이 보이면 반드시 津液을 보충하여야 한다<sup>160)</sup>고 하였다.

○ 微

左關에 微脈이 보이면 下元을 따뜻하게 해야 하고, 右關에 微脈이 보이면 氣海의 寒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sup>161)</sup>고 하였다.

○ 細

左關에 細脈이 보이면 脚膝의 酸을 생각해야 하고, 右關에 細脈이 보이면 腹部의 泄瀉가 두렵다<sup>162)</sup>고 하였다.

○ 急

左關에 急脈이 보이면 肝이 痛하여 수면을 하지 못하며, 右關에 急脈이 보이면 脾가 傷하여 스스로 눕지를 못한다<sup>163)</sup>고 하였다.

146) “左關見滑, 頭目腫痛堪嗟; 右關見滑, 脾胃熱甚甚苦.”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147) “左關見實, 痰癖可徵; 右關見實, 心腹多痛.”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148) “左關見弦, 肝旺生風; 右關見弦, 脾崩不食.”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149) “左關見緊, 筋脈急拘; 右關見緊, 嘈雜嘔吐.”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150) “左關見洪, 眼目生花; 右關見洪, 心腹結痛.”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151) “左關見沈, 必陰寒之癖積; 右關見沈, 定冷氣之難安.”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152) “左關見澁, 風邪寒閉, 因氣鬱而有餘; 右關見澁, 飲食傷殘, 實血虛之不足.”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153) “左關見遲, 兩脇多寒; 右關見遲, 中焦微冷.”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154) “左關見伏, 關格收藏; 右關見伏, 癰亂吐瀉.”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155) “左關見濡, 痺症將成; 右關見濡, 水臌可畏.”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156) “左關見弱, 筋痿宜防; 右關見弱, 氣短須補.”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157) “左關見數, 肝火盛而目紅; 右關見數, 胃火旺而口渴.”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158) “左關見大, 怒氣傷肝; 右關見大, 狂陽傷胃.”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159) “左關見小, 肝膽氣衰; 右關見小, 脾胃血少.”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160) “左關見虛, 必益其血; 右關見虛, 須補其津.”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161) “左關見微, 溫其下元之德; 右關見微, 暖其氣海之寒.”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162) “左關見細, 慮脚膝之酸; 右關見細, 恐肚腹之瀉.”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163) “左關見急, 肝痛而不能眠; 右關見急, 脾傷而自難臥.”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 代

左關에 代脈이 보이면 肝이 絶하여 통증을 막을 수 없고, 右關에 代脈이 보이면 肝이 絶하여 편안함을 구하지 못한다<sup>164</sup>)고 하였다.

○ 結

左關에 結脈이 보이면 胸滿하여 痰이 가운데에 結하고, 右關에 結脈이 보이면 脾傷하여 아래에 滯氣가 있다<sup>165</sup>)고 하였다.

○ 促

左關에 促脈이 보이면 肝이 腎水의 滋養함을 받지 못하고, 右關에 促脈이 보이면 脾胃가 腎火의 滋養을 받지 못한다<sup>166</sup>)고 하였다.

○ 革

左關에 革脈이 보이면 木이 왕성할 때에 氣가 脫하고, 右關에 革脈이 보이면 土가 붕괴되려는 證候에 氣脫이 있다<sup>167</sup>)고 하였다.

○ 動

左關에 動脈이 보이면 兩脇에 氣痛이 있을까 걱정하며, 右關에 動脈이 보이면 中焦에 火焚가 있을까 두렵다<sup>168</sup>)고 하였다.

○ 毛

左關에 毛脈이 보이면 肝木이 왕성하여 風을 생하며, 右關에 毛脈이 보이면 胃土가 왕성하여 火를 動한다<sup>169</sup>)고 하였다.

○ 軟

左關에 軟脈이 보이면 無病한 사람이고, 右關에 軟脈이 보이면 客에게 祭를 가함이다<sup>170</sup>)고 하였다.

○ 鈎

左關에 鈎脈이 보이면 肝血이 충분하며, 右關에 鈎脈이 보이면 脾氣가 편안하다<sup>171</sup>)고 하였다.

○ 靜

左關에 靜脈이 보이면 즐거이 복을 누릴 수 있고, 右關에 靜脈이 보이면 기운이 잘 펼쳐지고 強食의 즐거움을 누린다<sup>172</sup>)고 하였다.

164)“左關見代, 肝絶而痛則無妨; 右關見代, 肝絶而安則無救。”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165)“左關見結, 胸滿而痰結于中; 右關見結, 脾傷而滯氣于下。”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166)“左關見促, 肝無腎水之滋; 右關見促, 脾無腎火之養。”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167)“左關見革, 氣脫于木旺之時; 右關見革, 氣脫于土崩之候。”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168)“左關見動, 兩脇有氣痛之愁; 右關見動, 中焦有火焚之懼。”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169)“左關見毛, 肝木旺而生風; 右關見毛, 胃土盛而動火。”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170)“左關見軟, 無病之人; 右關見軟, 加祭之客。”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171)“左關見鈎, 肝血之足; 右關見鈎, 脾氣之安。”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 石

左關에 石脈이 보이면 筋이 寒을 만나서 拘攣이 되고, 右關에 石脈이 보이면 胃가 冷함으로 설사가 난다<sup>173</sup>)고 하였다.

○ 堅

左關에 堅脈이 보이면 邪가 반드시 經絡에 머물러 있고, 右關에 堅脈이 보이면 邪가 臟腑에 모여 있다고 하였다<sup>174</sup>)고 하였다.

○ 躁

左關에 躁脈이 보이면 血이 건조하여 怒가 많으므로 고동 받으며, 右關에 躁脈이 보이면 津液이 말라서 嘔吐를 잘 한다<sup>175</sup>)고 하였다.

○ 搏

左關에 搏脈이 보이면 지나치게 왕성하여 中風으로 됨을 방지하여야 하며, 右關에 搏脈이 보이면 지나치게 왕성하여 狂病으로 됨을 염려한다<sup>176</sup>)고 하였다.

○ 散

左關에 散脈이 보이면 筋이 이완되어 수렴되지 못하며, 右關에 散脈이 보이면 肢가 풀어진다<sup>177</sup>)

4. 左右尺下에 나타난 脈에 따른 症候

● 鬼眞君曰

○ 浮

左尺에 浮脈이 보이면 水가 고갈되어 두 귀가 耳聾이 되고, 右尺에 浮脈이 보이면 火가 왕성하여 大腸이 便秘가 된다<sup>178</sup>)고 하였다.

○ 芤

左尺에 芤脈이 보이면 小便을 흘리며 膿血이 나오고, 右尺에 芤脈이 보이면 大便이 나오는데 赤紅으로 나온다<sup>179</sup>)고 하였다.

○ 實

左尺에 實脈이 보이면 膀胱에 水가 閉하여 不通하

172)“左關見靜, 優游享無事之福; 右關見靜, 舒暢享強食之愉。”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173)“左關見石, 筋得寒而拘攣; 右關見石, 胃因冷而泄瀉。”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174)“左關見堅, 邪必留戀于經絡; 右關見堅, 邪必會聚于臟腑。”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175)“左關見躁, 必苦血乾而多怒; 右關見躁, 必苦液涸而善嘔。”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176)“左關見搏, 防太盛之中風; 右關見搏, 慮過旺之狂病。”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177)“右關見散, 肢解而不可舉。”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178)“浮見尺左, 水虧而雙耳齊聾; 浮見尺右, 火旺而大腸自秘。”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179)“芤見尺左, 小遺多膿血之災; 芤見尺右, 大便下赤紅之歡。”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고, 右尺에 實脈이 보이면 오줌이 나가는데 火하여 나오지 못한다<sup>180)</sup>고 하였다.

○ 弦

左尺에 弦脈이 보이면 腰腹이 重滯되어 疼이 생기며, 右尺에 弦脈이 보이면 腎臟이 風邪로 인하여 耗損된다<sup>181)</sup>고 하였다.

○ 緊

左尺에 緊脈이 보이면 매미 우는 소리가 들리고, 右尺에 緊脈이 보이면 배꼽을 蟲이 물어뜯는 것처럼 나타난다<sup>182)</sup>고 하였다.

○ 洪

左尺에 洪脈이 보이면 水가 건조하여 消渴病이 되며, 右尺에 洪脈이 보이면 火炎이 위로 올라가 夢遊病이 된다<sup>183)</sup>고 하였다.

○ 微

左尺에 微脈이 보이면 盜汗이 되어 떨어지고, 右尺에 微脈이 보이면 腸鳴하여 泄瀉가 난다<sup>184)</sup>고 하였다.

○ 沈

左尺에 沈脈이 보이면 精이 얼음과 같이冷하고, 右尺에 沈脈이 보이면 허리가 물처럼 차다<sup>185)</sup>고 하였다.

○ 澁

左尺에 澁脈이 보이면 陰寒으로 疝結이 되고, 右尺에 澁脈이 보이면 逆冷으로 腸이 붕괴된다<sup>186)</sup>고 하였다.

○ 遲

左尺에 遲脈이 보이면 下焦가 寒冷하고, 右尺에 遲脈이 보이면 小腹이 陰으로 인하여 凝滯가 된다<sup>187)</sup>고 하였다.

○ 伏

左尺에 伏脈이 보이면 陽氣가 위로 오르지 못하고, 右尺에 伏脈이 보이면 陰氣가 다시 막힌다<sup>188)</sup>고 하였다.

○ 濡

左尺에 濡脈이 보이면 寒濕이 骨로 침입하고, 右尺에 濡脈이 보이면 冷이 허리에 적중한다<sup>189)</sup>고 하였다.

○ 弱

左尺에 弱脈이 보이면 다리의 骨이 시리며, 右尺에 弱脈이 보이면 兩腿의 氣가 결핍이 된다<sup>190)</sup>고 하였다.

○ 大

左尺에 大脈이 보이면 腎이 固冷하여 精液을 흘리며, 右尺에 大脈이 보이면 命門의 작용이 衰退하게 된다<sup>191)</sup>고 하였다.

○ 小

左尺에 小脈이 보이면 水가 모순되어 많지 않고, 右尺에 小脈이 보이면 火가 쇠약하여 왕성하지 못한다<sup>192)</sup>고 하였다.

○ 虛

左尺에 虛脈이 보이면 心腎이 不交하며, 右尺에 虛脈이 보이면 水火가 모두 결핍이 되었다<sup>193)</sup>고 하였다.

○ 微

左尺에 微脈이 보이면 冷이 關元으로 들어가며, 右尺에 微脈이 보이면 寒이 背속을 통과한다<sup>194)</sup>고 하였다.

○ 細

左尺에 細脈이 보이면 骨髓가 冷하여 脛枯하며, 右尺에 細脈이 보이면 命門이 寒冷하여 精을 疎泄시킨다<sup>195)</sup>고 하였다.

○ 數

左尺에 數脈이 보이면 水가 적어 火가 끓어올라 痰이 되고, 右尺에 數脈이 보이면 水가 火炎을 따라 올라가 喘이 생긴다<sup>196)</sup>고 하였다.

○ 急

左尺에 急脈이 보이면 痛증이 陰丸으로 들어가며, 右尺에 急脈이 보이면 痛症이 아랫배에 첨가된다<sup>197)</sup>고 하였다.

180) “實見尺左, 膀胱水閉而不通; 實見尺右, 溺瀝火溢而難出.”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181) “弦見尺左, 腰腹重滯生疼; 弦見尺右, 腎臟風邪作耗.”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2.

182) “緊見尺左, 耳似蟬鳴; 緊見尺右, 臍同蟲咬.”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2.

183) “洪見尺左, 水熬乾而消渴; 洪見尺右, 火炎上而夢遺.”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2.

184) “微見尺左, 盜汗淋漓; 微見尺右, 腸鳴泄瀉.”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2.

185) “沉見尺左, 精冷如冰; 沉見尺右, 腰寒若水.”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2.

186) “澁見尺左, 陰寒疝結; 澁見尺右, 逆冷腸崩.”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2.

187) “遲見尺左, 下焦寒冷; 遲見尺右, 小腹陰凝.”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2.

188) “伏見尺左, 陽氣不升; 伏見尺右, 陰氣更閉.”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2.

189) “濡見尺左, 寒濕侵骨; 濡見尺右, 冷痠中腰.”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2.

190) “弱見尺左, 雙足骨酸; 弱見尺右, 兩腿氣乏.”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2.

191) “大見尺左, 腎涸于遺精; 大見尺右, 命殘于作用.”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2.

192) “小見尺左, 水耗無多; 小見尺右, 火衰不旺.”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2.

193) “虛見尺左, 心腎不交; 虛見尺右, 水火皆乏.”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2.

194) “微見尺左, 冷入關元; 微見尺右, 寒通腹裡.”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2.

195) “細見尺左, 髓冷脛枯; 細見尺右, 命寒精泄.”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2.

196) “數見尺左, 水少而火沸爲痰; 數見尺右, 火炎而水隨作喘.”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2.

197) “急見尺左, 痛入陰丸; 急見尺右, 疼添小腹.”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2.

하였다.

○ 短

左尺에 短脈이 보이면 延齡의 福을 누리지 못하고, 右尺에 短脈이 보이면 부부교합을 못함으로 부끄러움을 느낀다<sup>198)</sup>고 하였다.

○ 代

左尺에 代脈이 보이면 精이 敗하여 끊어지려고 하며, 右尺에 代脈이 보이면 火가 식어 장차 망하려고 한다<sup>199)</sup>고 하였다.

○ 結

左尺에 結脈이 보이면 邪가 水를 浸濕하여 消散되지 않으며, 右尺에 結脈이 보이면 邪가 火를 타고 떨어지지 않는다<sup>200)</sup>고 하였다.

○ 促

左尺에 促脈이 보이면 骨髓가 耗損되어 다리로 걸지를 못하고, 右尺에 促脈이 보이면 火가 衰退하여 氣가 心으로 통하지 못한다<sup>201)</sup>고 하였다.

○ 革

左尺에 革脈이 보이면 玉關(子宮)이 닫히지 않으며, 右尺에 革脈이 보이면 河車(足太陽經, 膀胱)가 모두 타 오른다<sup>202)</sup>고 하였다.

○ 動

左尺에 動脈이 보이면 魂夢으로 遺精이 많으며, 右尺에 動脈이 보이면 陽強으로 不倒한다<sup>203)</sup>고 하였다.

○ 毛

左尺에 毛脈이 보이면 精이 모순되어 相火가 장차 일어나려 하고, 右尺에 毛脈이 보이면 불이 치솟아 命門이 스스로 熱이 난다<sup>204)</sup>고 하였다.

○ 軟

左尺에 軟脈이 보이면 腎이 弱하게 되며, 右尺에 軟脈이 보이면 火가 衰하여 마땅히 도와줘야 한다<sup>205)</sup>고 하였다.

○ 鈎

左尺에 鈎脈이 보이면 陰平한 士이며, 右尺에 鈎脈

이 보이면 陽秘의 徒이라<sup>206)</sup>고 하였다.

○ 靜

左尺에 靜脈이 보이면 閉關임을 가히 믿을 수 있고, 右尺에 靜脈이 보이면 守眞을 의심할 수 없다<sup>207)</sup>고 하였다.

○ 石

左尺에 石脈이 보이면 精이 기울어 손상되지 않은 것이며, 右尺에 石脈이 보이면 陽이 退藏의 기쁨이 있다<sup>208)</sup>고 하였다.

○ 堅

左尺에 堅脈이 보이면 邪가 骨髓로 들어간 것이며, 右尺에 堅脈이 보이면 邪가 腰膝에 居한다<sup>209)</sup>고 하였다.

○ 躁

左尺에 躁脈이 보이면 腎이 心과 交流하지 못하며, 右尺에 躁脈이 보이면 陽이 膈膜을 뛰어넘고 있다<sup>210)</sup>고 하였다.

○ 搏

左尺에 搏脈이 보이면 膀胱이 熱로 막히어 淋이 되고, 右尺에 搏脈이 보이면 咽喉에 瘡蛾의 腫이 자란다<sup>211)</sup>고 하였다.

○ 散

左尺에 散脈이 보이면 腎水가 끊어지려고 하고, 右尺에 散脈이 보이면 元陽이 頃刻間에 도피하려 한다<sup>212)</sup>고 하였다.

● 陳士鐸曰

陳士鐸은 寸,關,尺을 나누어 관찰하고 합하여 관찰함의 중요성과 三部를 脈診時 어느 부위에 치우침 없이 총괄하여 관찰함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1) 脈診에 있어 寸,關,尺을 나누어 관찰하여야 한다.

陳士鐸은 三部 脈診時 寸,關,尺을 알고 寸,關,尺으로 나누어 관찰할 때 病精을 알아낼 수 있다<sup>213)</sup>고 하

198) “短見尺左, 自無延齡之福; 短見尺右, 定含怯戰之羞.”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2.

199) “代見尺左, 精敗欲絕; 代見尺右, 火熄將亡.”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2.

200) “結見尺左, 邪襲水而不散; 結見尺右, 邪乘火而不離.”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2.

201) “促見尺左, 髓耗而足難行步; 促見尺右, 火衰而氣不通心.”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2.

202) “革見尺左, 玉關不閉; 革見尺右, 河車俱焚.”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2.

203) “動見尺左, 定然魂夢多遺; 動見尺右, 定然陽強不倒.”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2.

204) “毛見尺左, 精耗而龍火將興; 毛見尺右, 焰騰而命門自熱.”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2.

205) “軟見尺左, 腎弱相宜; 軟見尺右, 火衰當助.”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2.

206) “鈎見尺左, 陰平之士; 鈎見尺右, 陽秘之徒.”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2.

207) “靜見尺左, 閉關可信; 靜見尺右, 守眞無疑.”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2.

208) “石見尺左, 精無傾失之慨; 石見尺右, 陽有退藏之慶.”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2.

209) “堅見尺左, 邪入于骨髓; 堅見尺右, 邪居于腰膝.”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2.

210) “躁見尺左, 腎難上交于心; 躁見尺右, 陽且高越于膈.”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2.

211) “搏見尺左, 膀胱越熱閉之淋; 搏見尺右, 咽喉長瘡蛾之腫.”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2.

212) “散見尺左, 腎水欲絕于須臾; 散見尺右, 元陽將逃于頃刻.”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2.

213) “脈不分觀部位, 則病情不可得而知, 此寸,關,尺必須分觀其脈也.”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였다.

2) 脈診에 있어 나누어 관찰한 후에 寸,關,尺을 합하여 관찰함

寸,關,尺을 나누어 관찰한 후에 그것에 그치지 않고 寸,關,尺을 연결하고 합하여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즉 上中下, 寸,關,尺이 서로 연결되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寸,關,尺을 兼하는 것이 있으므로 연결하여 관찰하는 것이 마땅하다<sup>214)</sup>고 한 것이다.

3) 寸,關,尺을 나누어 관찰 후 합하여 관찰함이 마땅함

陳士鐸의 나누어 관찰함과 합하여 관찰함의 내용을 간추려 보자면 먼저 寸,關,尺을 나누어 봐서 細微한 것을 안 후에 합하여 관찰하여 調和를 얻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방법에 있어서는 나누어 관찰할 때는 一指로 그 脈을 切하고 합하여 관찰할 때는 마땅히 三指로 切脈하여야 한다<sup>215)</sup>고 하였다.

4) 診脈時 三部중 어느 부위에 치우침 없이 統括하여 관찰

陳士鐸은 診脈時 三部중 어느 부위에 치우침 없이 統括하여 관찰해야 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기를 三部脈중에 尺脈이 근본으로서 중요하지만 尺脈에만 비중을 두는 것이 결코 옳지 못하고 寸,關,尺 모두 치우침 없이 通觀해야 한다<sup>216)</sup>고 하였다.

5) 左側三部의 왕성함은 外感, 右側의 三部의 왕성함은 內傷

陳士鐸은 寸,關,尺의 三部를 합하여 봄으로서 虛實을 구분하고 外感, 內傷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서도 말하였다. 左側의 三部의 왕성함을 外感으로 볼 수 있고, 右側의 三部의 왕성함을 內傷으로 볼 수 있다<sup>217)</sup>고 하였다.

214) “寸,關,尺分上中下切之是矣, 然其中有上而兼中者, 有中而兼下者, 有中而兼上下者, 又不可不知之也。如寸脈浮而連于關, 關脈數而連于尺, 如關脈大而連于寸尺者是也。此又當合寸, 關, 尺而同觀, 又不可專主于寸而不及關, 專主于關而不及尺, 又在臨症切脈而變通之也。”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215) “脈宜分觀, 以別虛實。然又有合寸, 關, 尺以分虛實者, 大約左之寸, 關, 尺齊旺者, 乃外感居多。右之寸, 關, 尺齊旺者, 乃內傷居多, 非單左寸旺爲外感, 右寸旺爲內傷也。”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216) “三部之脈, 前人以尺脈爲根, 似乎切脈重在尺也。不知本實先撥, 固然枝葉難榮。然而過於摧殘, 如狂風大雨拔木折枝, 根亦隨竭。此脈所以必統三部而分觀之也。”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217) “脈宜分觀, 以別虛實。然又有合寸, 關, 尺以分虛實者, 大約左之寸, 關, 尺齊旺者, 乃外感居多。右之寸, 關, 尺齊旺者, 乃內傷

### 3. 緩脈과 長脈의 중요성

● 鬼眞君曰

六部の 脈診시 上中下の 緩을 취함과 寸,關,尺의 長脈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하였다. 脈이 緩하면 胃氣가 있고 長脈은 宗脈이 되므로 緩하고 長함을 귀하게 여긴다<sup>218)</sup>는 것이다.

● 陳士鐸曰

鬼眞君의 내용을 陳士鐸은 平氣로서 胃氣의 귀함을 언급함으로써 보충하고 있다.

1) 平氣로서 胃氣의 귀함을 논하였다.

陳士鐸은 脈의 胃氣를 중시 여기는데 右關脈의 胃氣를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平氣로서, 平安한 기운으로서의 胃氣에 귀함에 대하여 이야기 했다.<sup>219)</sup>

2) 脾脈과 胃脈은 同關해야 한다.

脾脈과 胃脈은 同觀하여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脾와 胃는 表裏臟腑이기 때문에 脾胃를 따로 생각할 수 없고 모두 右關脈으로서 同觀하여야 한다고 한 것이다. 여기서는 平氣로서의 胃氣가 아닌 右關脈으로서 胃氣를 말한 것이다.<sup>220)</sup>

### 第四篇 生死·吉凶脈

이 篇에서 다루는 내용은 脈診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危重한 症狀에 있어 生死吉凶脈을 판단하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먼저 危重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生死吉凶脈을 구분하고, 死亡脈이 나타나더라도 가볍게 판단하지 말 것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또한 細微한 死亡脈에 있어서는 症과 함께 살펴야 함을 강조하였고, 生死는 有神의 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 1. 危重한 症狀에 生死脈을 구분

居多, 非單左寸旺爲外感, 右寸旺爲內傷也。”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218) “此皆六部之專主, 亦即各脈之旁通。然而各脈之中, 緩急爲要; 六部之內, 長脈爲宗。脈長而命根深, 脈緩而胃氣在, 故上中下必取其緩, 而寸, 關, 尺必尙長也。”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219) “凡人脈貴有胃氣。胃氣者, 平氣也, 毋論寸, 關, 尺, 下指之時覺有平和之象, 即是有胃氣也, 非獨右關平和始有胃氣耳。”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220) “脾與胃爲表裏, 胃病則脾必病, 脾病則胃亦病, 病安有胃氣哉。故脾脈與胃脈同觀, 所以脾胃之脈, 皆在右關切之耳。”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 鬼眞君曰

鬼眞君은 診脈으로는 마땅히 그 生死를 分別하여야 하며, 하루에도 마땅히 시간을 정해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 傷寒의 熱病은 洪大하면 生하고, 沈細하면 死한다.
- 頭痛의 病은 浮滑하면 生하고, 短澁하면 死한다.
- 腹痛의 증상은 虛小하면 死하고, 大浮하면 生한다.
- 中風은 浮遲한 것을 가장 좋아하고, 急實하면 起死하지 못한다.
- 吐血鼻衄은 沈弱沈細하면 生하고, 實大浮大하면 망할 징조다.
- 喘急은 浮滑하여야 마땅하며, 短澁하면 망한다.
- 久瀉는 반대로 마땅히 細微하면 좋으며, 浮洪하면 대부분 歸陰<sup>221)</sup>한다.
- 新産하면 大弦함을 절대 꺼리며, 緩滑하면 世辭<sup>222)</sup>할까 근심한다.
- 便閉는 微細하면 生하고, 洪大하면 陰이 다하여 傷한다.
- 發汗은 虛小하면 生하고, 弦洪하면 陽亡하여 失하게 된다.
- 腹痛은 沈伏하면 대부분 泉台<sup>223)</sup>로 들어가고, 扞大하면 脇痛이 있지만 死路에서 달아날 수 있다.
- 脫症은 結代하면 인간 세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 喘症은 促革하면 쉽게 밝은 길로 나온다.
- 關格은 澁伏하면 마땅히 鬼錄에 올라간다.<sup>224)</sup>
- 癰疽는 滑大하면 다시 生錄의 기쁨으로 바뀐다.
- 結胸에 沈緊함이 보이면 반은 死亡한 것이다.
- 臍結에 浮滑하면 그 淹滯<sup>225)</sup>한 곳으로부터 신속히 낫는다.
- 直中陰經이면 代結한 것을 아주 꺼린다.
- 忽成熱病한 것은 浮洪하면 온전히 살아난다.
- 發斑에 洪大한 것은 죽을 징조가 아니다.
- 噎隔에 數細하면 실제로 生氣가 아니다.
- 偏枯의 증상에 弦滑하면 걱정이 없다.
- 歪斜의 病에 實大하면 가히 치료가 된다.
- 噤口의 痢疾에는 結澁하면 쉽게 치료되지 못한다.
- 中暑의 증상에 沈代이 나타나면 놀랄 필요가 없다.
- 循衣摸床에 細小하면 구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다.
- 遺尿撒手에 促革이 나타나면 반드시 喪損이다.

221) 歸陰: 죽는다. 사망한다.

222) 世辭: 세상을 하직한다. 죽는다.

223) 泉台: 무덤.

224) 登鬼錄: 귀신의 기록에 올려지다. 죽는다.

225) 淹滯: 오래 머무르다. 장기간 체류하다.

- 筋青囊縮에 微短하면 죽는다.
- 舌黑하고 髮直한데 數大하면 焦枯한다.
- 臍突脣裂한데 結代脈이 보이면 죽는다.
- 口脹足腫에 短促하면 어찌 延命 할 수 없다.
- 呃逆이 그치지 않는데 短散하면 就木<sup>226)</sup>하여야 한다.
- 懊憹이 그치지 않는데 微弱하면 加餐<sup>227)</sup>하여야 한다.
- 血暈에 散促하면 그 歸陰하는 것이 頃刻이다.
- 腸結에 博堅脈이 보이면 旦夕에 슬프게 울게 된다.<sup>228)</sup>

## 2. 危重한 症狀에 吉凶脈을 구분

● 鬼眞君曰

- 産後의 熱病은 緩滑하면 吉하고, 弦急하면 凶하다.
- 下痢의 증상은 微小하면 活하고, 浮洪하면 구하기 어렵다.
- 癲狂의 증상은 實大하면 全하고, 沈細하면 반대로 구하기 어렵다.
- 消渴의 증상은 數大하면 生機가 있고, 虛小하면 陰이 枯渴됨의 우려가 있다.
- 霍亂의 증상은 浮洪하면 죽지 않고, 微遲하면 陽이 亡할까 염려된다.
- 中惡은 緊細하여야 좋으며, 浮大하면 回生하기 어렵다.
- 心疼은 沈細한바 浮大하여 구하기 어려운 것과 비할 바가 아니다.
- 水氣는 大浮한바 沈細하여 치료하지 못하는 것과 유사하지 않다.
- 中毒腸癖은 洪大滑大하면 吉하고, 微細滑細하면 위험한 징조다.

226) 就木: 관을 취하다. 죽는다.

227) 加餐: 회복하다. 몸조리하다.

228) “診脈宜分生死, 決日當定時辰. 傷寒熱病, 洪大生而沉細死. 頭痛之病, 生于浮滑而死于短澁; 腹脹之症, 死于虛小而生于大浮. 中風最喜遲浮, 急實者何能起死; 吐血鼻衄, 沉弱沉細者生, 實大浮大俱爲亡兆; 喘急宜浮滑, 短澁云亡; 久瀉反宜微細, 浮洪者多致歸陰; 新産切忌大弦, 緩滑者寧憂辭世. 便閉生于微細, 洪大有陰盡之傷; 發汗生于虛小, 弦洪有陽亡之失. 腹痛沉伏, 多入泉台; 脇痛扞大, 定趨死路. 脫症結代, 難留人世; 喘症促革, 易走冥途. 關格澁伏, 常登鬼錄; 癰疽滑大, 轉慶生緣. 結胸現沉緊, 半寄于死亡; 臍結現浮滑, 速痊于淹滯. 直中陰經, 喪淪代結; 忽成熱病, 全活浮洪. 發斑洪大, 未是死徵; 噎隔數細, 實非生氣. 偏枯之症, 弦滑何愁; 歪斜之病, 數大可治. 噤口之痢, 結澁不易療; 中暑之症, 沉伏不須驚. 循衣摸床, 細小尤堪救授; 遺尿撒手, 促革必至喪損. 筋青囊縮, 微短殞殍; 舌黑髮直, 數大焦枯. 臍突脣裂, 結代應殺; 口張足腫, 短促何延. 呃逆不止, 短散就木; 懊憹無休, 微弱加餐. 血暈散促, 頃刻歸陰; 腸結搏堅, 旦夕歌露.” 柳長華 主編 前掲書 p.72.

- 咳嗽는 浮濡하면 좋으며, 沈伏하면 나쁘다.
- 嘔吐者는 虛細하면 吉하고, 實大하면 效과보기 어렵다.
- 癆瘵者는 浮滑하면 좋으며, 細數하면 效과보기 어렵다.
- 盜汗은 오로지 緊數함을 싫어하고, 虛小하면 걱정이 없다.
- 失血은 浮洪할가 염려되며, 細弱하면 기쁘다.
- 內實者는 浮洪하면 吉하며, 沈細하면 變전하여 화가 된다.
- 內虛者는 더욱 沈細하면 吉하며, 浮大하면 살지 못한다.
- 痺症은 더욱 浮大한 것을 싫어하고, 細澁하면 수명을 연장한다.
- 厥病은 緊弦한 것을 더욱 꺼리며, 洪數하면 풀어진다.
- 癥瘕는 細微하면 좋으며, 弦滑하면 위태롭다.
- 眩冒는 浮滑하면 서로 마땅하며, 沈澁者는 危重하다.
- 黃疸은 急數하면 안 되며, 遲滑하면 쉽게 消散된다.<sup>229)</sup>
- 白淋은 濡遲하면 貴하고, 澁弱하면 멈추어 막기 어렵다.

### 3. 五臟의 死脈을 論함

- 鬼眞君曰
- 脈에 또 帶鉤之象하면 心死가 九日에 정해진다
- 脈에 또 彈石之狀하면 腎死하여 반드시 七朝에 끊어진다.
- 脈에 또 弓弦之張이면 肝死함이 十八에 亡함이 정해진다.
- 脈에 또 釜沸之亂이면 脾死가 四三에 결정된다.
- 脈에 또 浮水之景이면 肺死가 十二에 喪하게 된다.<sup>230)</sup>

229) “產後熱病, 緩滑吉而弦急凶. 下痢活于微小, 浮洪反有難療之數; 癲狂全于實大, 沉細轉興莫救之憂. 消渴數大有生機, 虛小愁其陰盡; 霍亂浮洪無死法, 微遲慮彼陽亡. 中惡偏宜緊細, 浮大者不易回生. 心疼沉細, 非比浮大之難醫; 水氣大浮, 不似沉細之莫療. 中毒腸辟, 洪大滑大者吉, 微細滑細各是危徵. 咳嗽尚浮濡, 沉伏決斃. 嘔吐虛細者吉, 實大則艱于秦功; 癆瘵浮滑者佳, 細數則難以取效. 盜汗惟嫌緊數, 虛小無愁; 失血止慮浮洪, 細弱可喜. 內實者吉在浮洪, 沉細有變遷之禍; 內虛者吉在沉細, 浮大無存活之祥. 痺症尤嫌浮大, 細澁長延; 厥病更忌緊弦, 洪數即解. 癥瘕見細微而可喜, 弦滑者危; 眩冒見浮滑而相宜, 沉澁者重. 黃疸不宜急數, 遲滑易于分消; 白淋偏貴濡遲, 澁弱艱于止遏.”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2.

230) “更有帶鉤之象, 心死可定于九日; 彈石之狀, 腎死必絕于七朝; 弓弦之張, 肝死定于十八; 釜沸之亂, 脾死可決于四三; 浮水之景, 肺死應喪于十二也. 尚有秘法, 可以鑿傳于萬年, 如見前形,

### 4. 怪脈<sup>231)</sup>을 論함

- 鬼眞君曰
- 蝦游脈가 보이면 8日에 반드시 죽는다.
- 雀啄脈이 보이면 7日에 반드시 망한다.
- 吹毛脈이 보이면 4日에 반드시 위태롭다.
- 奪索脈이 보이면 1日에 반드시 죽는다.
- 屋漏脈이 보이면 5日에 반드시 죽는다.<sup>232)</sup>

### 5. 死亡脈을 관찰함에 유의점

- 陳士鐸曰
- 鬼眞君이 生死吉凶脈을 열거한 부분을 보충하여 陳士鐸은 死亡脈을 살필 때의 유의점에 대하여 논하였다.

1) 細微한 死亡脈을 觀察함에 있어 症과 함께 살펴야 한다.

陳士鐸은 細微한 死亡脈을 살핌에 있어서 脈이 숨어서 나오지 않으면서 끊어지지도 않는 경우도 있으니 症과 함께 살펴야 함이 마땅하다<sup>233)</sup>고 말하고 있다. 즉, 細微한 死亡脈에 있어 脈이 모두 끊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症과 살펴 실제로도 끊어진 脈인지 확인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 死亡脈이 보이더라도 가볍게 판단하여 포기하면 안됨

陳士鐸은 死亡脈이 나타나더라도 간혹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으니 가볍게 판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sup>234)</sup>고 말하였다. 死亡脈에 따라 살 수 있는 날짜가 비록 정해져 있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닐 수도 있으니 마땅히 판단을 신중히 하라는 이야기이다.

不必問現于何臟”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2.

231) 《東醫寶鑑》十怪脈: 雀啄脈, 屋漏脈, 彈石脈, 解索脈, 魚翔脈, 蝦遊脈, 釜沸脈, 偃刀脈, 轉豆脈, 麻促脈.

232) “見蝦游而斷八日之必死, 見雀啄而決七日之必亡, 見吹毛而言四日之必危, 見奪索而許一日之必逝, 見屋漏而定五日之必隕. 其餘死亡, 可據推斷.”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2.

233) “脈有細微欲絕者, 多是死亡之脈. 然脈有伏而不出, 狀似細微欲絕, 其實絕而未絕也, 一出脈而細微之象如失, 此等之脈最難辨別, 又當合症而參觀之, 未可全恃夫切脈也.”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3.

234) “脈現死亡, 不可轉斷死期, 往往有用藥得宜, 雖不能起死爲生, 然延留數日, 亦其常也. 訣中篇末有決日之法, 愚以爲終非定論, 但斷其必死, 而不必先定其日期, 當與高明共商之.”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3.

3) 死亡脈이 나타난 지 오래되면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陳士鐸은 만약 시일이 이미 오래 된 것은 비록 人蔘이 있다 해도 또 어찌 살아날 수 없다<sup>235)</sup>고 한 것을 추측해 보면 死亡脈이 나타난지 오래 되면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6. 生死의 區分에 있어서 胃氣와 有神의 重要성

### ● 陳士鐸曰

陳士鐸은 生死의 區分은 有神, 無神과 胃氣의 有無로서 판단 할 수 있다고 보충 설명하였다.

1) 有神과 無神에 따라서 生死를 구별한다.

陳士鐸은 脈에서 有神, 無神의 구별방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有神의 脈은 先後가 정연하고, 不亂하고, 按指하여 充然 유력한 것을 이르고 無神의 脈은 散亂하고, 있다가 없다가 하며 접속이 끊어지기도 하며, 沈細중에 依稀하거나 洪大중에 縹渺한 형태가 보이거나 한 것을 말한다<sup>236)</sup>고 하였다. 또한 無神의 脈이 나타나면 급히 補하는 藥으로서 구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2) 胃氣의 有無로서 生死를 구분한다.

陳士鐸은 또한 胃氣의 有無로서 有神, 無神을 구분하였다. 따라서 死脈에서도 胃氣가 남아 있다면 살 수 있고, 胃氣가 없으면 生脈이 나타나도 반드시 죽는다<sup>237)</sup>고 하였다.

3) 生死를 결정하는 有神과 無神을 귀하게 여김

중요한 부분이라서 陳士鐸이 다시 언급해서 말하고 있는데 만약 漁游, 雀啄의 脈이라든가 彈石, 解索, 屋漏

水流, 吹毛의 상태가 나타나면 이는 곧 死脈으로, 이런 脈은 그 死亡을 판단하는데 의심할 바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런 脈이 나타나지 않는데 死라고 언급하는 것은 마땅치 않고 결국 生死를 결정하는 것은 증상보다는 有神과 無神이니 이를 귀하게 여기고 生死를 판단하는데 중시해야 한다<sup>238)</sup>고 하였다.

## 第五篇 婦人·小兒脈訣

婦人脈의 주된 내용은 일반적으로 여자와 남자의 脈은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으나 단 妊娠해서 胎가 형성되었을 경우에는 男女脈을 구분해야 한다고 하였다. 婦人脈은 左尺이 왕성한 것이 특징이며, 鬱한 脈이 나타나면 가장 難治라고 하였다.

小兒脈의 특징은 氣血이 온전하지 못한 純陽之體로서 飲食傷이 대부분이고 驚疳吐瀉의 증상으로 포괄할 수 있으며, 外邪보다는 內傷이 많은 편이므로 補脾, 健胃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1. 婦人脈訣

1) 妊娠하여 胎가 형성되었을 경우에 男女脈의 구분

#### ● 鬼眞君曰

鬼眞君은 陰陽의 二道가 없듯이 男女의 脈 또한 서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다만 妊娠하여 胎가 형성되었을 경우에는 男女의 脈은 구별된다<sup>239)</sup>고 하였다.

#### ● 陳士鐸曰

陳士鐸도 男女의 病은 彼此 서로 같으며, 원래 反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病은 脈에 의거해서 같이 판단하는 것이고 婦人의 脈은 다만 胎產前後는 男子와 조금 다른바가 있다<sup>240)</sup>고 하였다.

235) “死亡之脈現之于驟者易救，以臟腑初絕，尚有根可接也，儻時日已久，雖有人蔘又何以生之于無何有之鄉哉，有無可如何者矣。”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3.

236) “看脈須看有神無神，實是秘訣。而有神無神何以別之？無論浮沈遲數澁滑大小之各脈，按指之下若有條理，先後秩然不亂者，此有神之至也。若按指而充然有力者，有神之次也。其餘，按指而微微鼓動者，亦謂有神。倘按之而散亂者，或有或無者，或來有力而去無力者，或輕按有而重按絕無者，或時而續時而斷者，或欲續而不能，或欲接而不得，或沈細之中條有依稀之狀，或洪大之內忽有飄渺之形，皆是無神之脈。脈至無神，即爲可胃，當用大補之劑急救之。倘因循等待，必變爲死脈，而後救之晚矣。”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6.

237) “死亡之脈，全在看脈之有神無神，有神者，有胃氣也。無神者，無胃氣也。故有胃氣，雖現死脈而可生，無胃氣，即現生脈而必死，又在臨症而消息之也。”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3.

238) “脈有生死之各別，如魚遊，雀啄之類，彈石，解索，屋漏，水流，吹毛之狀，自是死脈無疑，見此等之脈，即可決其必亡。苟無此等之現，似乎不宜遽言其死。不知脈貴有神，儻浮沈遲數之間，澁滑大小之際，初按若有，再按若無，或散或亂，或來或去，全無神氣，雖非旦夕之雲亡，必之歲月之難久，何常非死脈哉。儻代結之脈，按之有神，不過痰涎之壅塞，寒痛之遏抑，暫時之病，未常非生也，故決人生死，全要看脈之有神無神爲貴耳。”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3.

239) “陰陽原無二道，男女何有殊形。五臟相同，不必兩分彼此；三部亦一，寧須各論參差。惟受娠成胎，獨殊男子；故辨妊論孕，更別婦人。”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3.

240) “男女之病，彼此相同，原無反背，故有病可據露而同斷也。惟胎產前後，少異于男子，故鬼眞君又傳此篇，而于論孕獨詳也。至于小兒，原不必切脈，以氣血未全，各脈不十分全準。”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3-74.



2) 妊娠狀態에 따른 脈狀

● 鬼眞君曰

妊娠한 狀態에 있어 三部脈을 관찰하여 男女와 雙胎兒를 區分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三部脈 중에서 모든 脈이 順함이 있어야 하고, 어느 하나의 脈이라도 滯가 있으면 胎가 형성 되었다고 할 수 없다<sup>241)</sup>고 조건을 붙여 설명하였다.

3) 寸脈,尺脈의 脈狀에 따른 母子의 生存,死亡관계

● 鬼眞君曰

子를 腎과 尺에 연관시키고 母를 肺와 寸에 연관시켜서 寸, 尺에 나타난 脈象으로 子母의 生死를 판단하고 있다. 즉, 子死하고 母存하는 것은 尺浮寸沈脈이며, 母亡하고 子活은 尺澀寸伏脈이다<sup>242)</sup>고 하였다.

4) 出産에 임박하여 나타나는 脈狀

● 鬼眞君曰

鬼眞君이 말하기를 沈細의 脈은 胎가 떨어져 流産하려고 하는 것이고, 浮滑한 脈은 장차 出産하려고 하는 것이다. 腹痛과 腰痛이 있으면 胎兒가 下降하여 내려오는 것이고, 羊水가 나오고 胞가 破하면 胎兒가 生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子母가 살지 못하면 唇口에 거품이 出하며, 娘兒가 온전하게 살려면 面鼻顔이 黃色이라<sup>243)</sup>고 하여 出産에 임박하여 나타나는 脈에 따른 順逆 상태에 대하여 論하고 있다.

5) 新産後 脈狀에 따른 증상

● 鬼眞君曰

新産한 후의 脈象은 胃氣가 존재하여야 좋은 것이고 實大脈, 弦脈, 澀促脈, 洪脈은 좋지 못한 脈이고 脈이 沈小實하거나 緩脈, 滑脈, 微脈이 좋은 것이다<sup>244)</sup>고

241) “尺中脈滑，女經不調，且有帶淋之病；關中脈澀，天癸已斷，寧非鬱塞之疴。左寸滑而左尺大，懷子之兆；左尺數而左關微，有兒之徵。左寸帶縱，兩男之祥；右寸帶縱，雙女之喜。左關左尺脈皆大，心脈流利必三男；左關右尺脈皆大，心脈流利必三女。然三部有一部之滯，未宜遽許爲胎；各脈無一脈之順，何敢輕言是孕。”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4.  
242) “子死母存，尺浮而寸沈；母亡子活，尺澀而寸伏。蓋子系于腎，尺浮則子無生氣；母系于肺，寸沉則母有生機。子系于尺，尺澀而子之氣不敵；母系于寸，寸伏而母之根已離。”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4.  
243) “沈細之脈，胎欲離經；浮滑之脈，胞將即産。腹疼腰痛，定然卽降；漿來胞破，未可言生。身重體寒面又青，脈無可畏；心煩血燥舌兼黑，脈斷堪憂。子母難留，脣口沫出；娘兒全活，面鼻顏黃。”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4.

하였다.

● 陳士鐸曰

陳士鐸은 尺脈이 왕성한 것이 婦人脈의 특징이라는 것과 婦人脈에 있어서 鬱脈은 難治라는 것을 보충 설명하고 있다.

(1) 婦人脈은 左尺이 왕성한 것이 특징

婦人의 脈은 남자와 다른 점이 左尺이 왕성함에 있다고 하였다. 즉, 남자에게는 左尺이 왕성한 것이 그다지 좋은 징조가 아니나 여자는 陰血이 많으므로 左尺이 왕성하면 受胎하기 쉽다<sup>245)</sup>고 하였다.

(2) 鬱한 脈이 나타나면 難治임

婦人病에서 鬱이 많으면 難治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중에서 左關에 澀한 脈이 나타나는 鬱滯한 것이 가장 難治라고 말하고 있다.<sup>246)</sup> 다시 말하면, 肝이 배속된 左關을 봐서 澀한 脈이 나타나는지 판단을 하고 左關에 澀한 脈이 나타나면 鬱滯가 심한 것으로 보고 婦人病에서 難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2. 小兒脈訣

1) 小兒는 純陽之體이므로 內傷이 많음

● 鬼眞君曰

小兒를 純陽之體로 보았기 때문에 小兒의 脈의 특징은 數하고 長한 脈은 좋다고 볼 수 있지만, 沈遲하고 細小한 것과 急脈과 大脈이 나타나면 좋지 못하다<sup>247)</sup>고 하였다.

● 陳士鐸曰

陳士鐸은 小兒에 있어서 飲食傷이 많다고 하였고, 內傷時에는 建脾, 健胃를 중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

244) “新産脈緩，自存胃氣；新産脈滑，未損脾陰。實大既形，定非佳信；弦急兼現，豈是麻祥。沉小實爲順候，澀促半作逆觀。脈微何是害，尚可回陽；脈洪反宜愁，最嫌逆冷。”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4.  
245) “婦人之脈少異于男子者，左尺多旺耳。男子左尺旺，實非佳兆。女子左尺旺，此陰血有餘，轉是佳祥，蓋易于受胎也。”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4.  
246) “婦人之病最難治者，以其性情多鬱耳。鬱則氣血卽不流通，經輒閉塞，而左關隨現澀脈矣。故看婦人之脈，貴切肝脈，辨其澀與不澀是第一秘法，雖各經皆有澀脈，而左關不澀，其鬱末甚也。”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4.  
247) “婦人之脈若此，小兒之診若何？三部不妨俱數，只慮沉遲；六經各喜均長，翻嫌細小。惟弦緊不可驟揚，恐來風邪之祟；更虛濡不宜長見，虞多水氣之殃。急脈形于指下，嘔吐而腹痛難痊；大脈浮于關前，瀉利而心驚不救。見此已可通彼，知偏何難悟全哉。”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4.

다.

(1) 飲食傷이 대부분이고 小兒의 脈은 數, 長한 것을 좋아함

小兒는 氣血이 온전하지 못하므로 切脈할 필요가 없고, 純陽之體로서 飲食傷이 대부분이고, 驚, 疳, 吐, 瀉의 증상이 포괄된다<sup>248)</sup>고 하였다.

(2) 小兒의 脈에서 外邪와 內傷의 구분

陳士鐸이 論하기를 小兒의 脈에서 弦緊하고 弦急한 것은 外邪이고 나머지는 모두 內傷의 脈이다. 또한 內傷 治療에 있어서는 補脾, 健胃를 우선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外邪 治療에 있어서도 正氣를 생각해야 한다<sup>249)</sup>고 하였다.

### III. 결론

1. 儒敎의 ‘性情論’에 따라 脈의 左右 寸, 關, 尺을 구분하였다.

儒敎의 관점에서 寸, 關, 尺을 논하였는데, 寸, 關, 尺을 儒敎에서 언급된 性情命과 陰陽論에 근거해서 근본인 性과 쓰임인 情을 左寸關, 右寸關으로 나누어 각각 心肝과 肺脾를 配屬하였다. 그리고 兩腎은 水火之臟이므로 水火는 分配하기 어렵다고 하여, 兩尺에 하나의 腎을 配屬시켜 설명하고 다만 중간을 命門이라 하였다. 여기서 陳士鐸의 左寸關을 至性으로 右寸關을 深情으로 보고 둘이 합해진 兩尺의 중간을 命門으로 본 관점은 儒敎의 性情論 思想과 뜻이 통한다<sup>250)</sup>고 볼 수 있다.

2. 五臟을 爲主로 診脈하였다.

陳士鐸은 診脈을 할 때에 五臟만을 살핌으로써 나머지 六腑까지 모두 살필 수 있다고 하였다. 《鬼眞君脈訣》序에서 “臟이 病들면 腑 역시 病이 되고, 腑가 病들면 臟 역시 病이 되는 고로 臟을 치료하면 腑는 그 안에 있으며 臟을 진맥하면서 腑역시 그 안에 있는 것이다”<sup>251)</sup>하여 診脈을 할 때에 臟腑를 나눌 필요가

없이 五臟의 脈을 가지고 六腑의 病까지도 類推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그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근거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內經》에 비록 나누어져 있는 七腑部位는 일정한 이치가 있는 것 같지만 연구해보면 臟腑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고, 만약 단지 五臟을 切脈하지 아니하고 五行의 生克을 논한다면 病情이 반대로 숨어 없어진다.”<sup>252)</sup> 즉 구별하기 힘든 臟과 腑의 脈狀에 대한 구별보다는 五臟의 脈을 통한 病理의 유추하는 것을 중요하게 본 것이다.

3. 診脈의 基礎的인 部分을 爲主로 說明하였다.

陳士鐸은 脈의 精微한 것은 淺近한데서 나오기 때문에 지나치게 深奧한 것만을 구하려 한다면 도리어 그 脈의 理致를 잃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脈을 보는 方法을 기본적인 것부터 자세히 說明하였으니 예를 들면 “切脈하는데는 먼저 調息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 나의 息을 조절한 후에 病人의 息을 관찰할 수 있다. 대개 病人의 息은 호흡이 주밀하지 못하다. 따라서 의사의 息이 不平하다면 또 어찌 病人의 息을 알 수 있겠는가! 고로 醫學을 배우는 자는 平日에 導引의 法을 배워야 한다.”<sup>253)</sup>하여 醫師의 調息을 위하여 導引法으로 平素부터 修練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까지도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올바른 診斷을 위해서는 어려운 脈理만을 窮究할 것이 아니라 辨證과 더불어 診斷하여 患者의 狀態를 바로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면 “脈을 볼 때는 반드시 症을 보아야 한다. 症이란 脈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脈은 서로 다르며, 天生이 陰脈이 있어서 皮毛안으로 들어가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또 어느 곳으로 脈을 볼 것인가! 고로 반드시 觀症하여야 한다. 症候를 판별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起居하는 靜躁를 보는바 靜이 陰이요, 躁는 陽이라, 또 飲食의 寒熱을 살피는바 寒을 좋아하면 熱한 것이요, 熱을 좋아하면 寒이다. 또 그 大小便의 燥濕短長을 물어보아서 燥短

248) “鬼眞君之論小兒, 亦約略之辭. 然而小兒純陽, 所生之病, 多是飲食之傷, 驚疳吐瀉之症. 得此數言, 以括其全, 所謂要言不煩也.”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4.

249) “小兒之脈, 弦緊, 弦急俱是外邪, 除此之外, 皆內傷也. 治內傷之法, 以補脾健胃爲先, 卽治外邪, 亦當顧正, 雖脈純現弦緊, 弦急, 未可單祛外邪也.”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4.

250) “左寸心, 左關肝, 火木寧無至性; 右寸肺, 右關脾, 土金本有深情. 惟兩尺爲腎, 水火實難分配; 中間是命, 左右還可同觀.”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3.

251) “蓋病分臟腑, 若脈則傳臟而不及腑, 寧脈與病異哉? 不知病必兼臟, 而脈不可兼臟也. 《靈》《素》二書有時合而言之, 何今傳《脈訣》獨與病殊乎? 以臟病而腑亦病, 腑病而臟亦病, 故治臟而腑在其中, 切臟而腑亦在其內, 又何必合言之.” 柳長華 主編, 前揭書 p.59.

252) “七腑部位《內經》雖分, 似乎有一定之理, 而究難別臟腑之異, 不若單切五臟, 論其五行之生克, 病情反無可通也.”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6.

253) “切脈貴先調息, 吾息調而後可以察病人之息. 蓋病人之息, 呼吸不到, 未有能調者也. 倘醫者之息不平, 又何以治病人之息哉. 故學醫者, 平日學導引之法, 則呼吸之間, 無太過不及, 自然下指之時息數分明, 可以察病人之脈也.”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6.

하면 實이요, 濕長하면 虛이다. 또 그 口舌의 黃白峭滑을 판단하는바 黃峭하면 邪가 盛한 것이고, 白滑하면 正氣가 衰한 것이다. 이렇게 關症하여 切脈하지 못하는 것을 보충하니 이것이 觀症의 妙이다.”<sup>254)</sup>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診斷에 있어서 觀症을 重要視한 그의 學術 思想을 엿볼 수 있다.

4. 脈診에 있어 三部齊按法을 제시하였다.

陳士鐸은 脈診에 있어서 寸,關,尺을 하나씩 짚어본 후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寸,關,尺을 동시에 짚어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즉 上中下와 天地人, 寸,關,尺이 서로 연결되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므로 연결하여 관찰하는 것이 마땅하다<sup>255)</sup>고 하여 三部脈를 같이 짚어보면서 虛實과 生克을 論하는 三部齊按法을 제시한 것이다.

5. 陰陽五行의 原理에 따라 脈理를 說明하였다.

陳士鐸은 脈理를 說明하는데 陰陽五行의 理致에 따라 說明을 하려고 하였다. “臟腑의 病이 비록 각각 서로 다르나 요지는 五行의 生克을 벗어나지 못하나니 生을 만나면 病이 쉽게 낫지만, 克을 만나면 病이 낫기 어렵다.”<sup>256)</sup>라고 하여 그는 《內經》에 언급된 四時에 따른 脈象의 生死를 구별하는 방법을 五行生克의 原理에 따라 說明하였고, 각 臟腑의 病에 따른 脈의 吉凶을 五行生克으로 說明하였다.

#### IV. 참고문헌

1. 柳長華 主編, 陳士鐸醫學學術思想研究, 山東中醫藥大學, 1999.
2. 朱文鋒 主編, 中醫診斷學, 人民衛生出版社, 1999.
3. 陳士鐸, 辨證錄, 中國古籍出版社, 1993.
4. 陳士鐸, 本草新編, 中國中醫藥出版社, 2000.
5. 柳長華 主編, 陳士鐸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6. 吳祺鏞, 國譯 王叔和脈訣, 成輔社, 1995.
7. 韓成昊, 脈診學講義, 香港中醫師公會, 1980.
8. 朴炅 外, 國譯脈學輯要脈語, 대성문화사, 1997.
9. 裴慶元, 珍本醫書集成,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0. 王叔和, 王叔和脈經, 癸丑文化史, 1985.
11. 陳士鐸, 洞天奧旨,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12. 陳士鐸, 辨證錄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9.
13. 陳士鐸, 石室秘錄, 大星文化社, 1993.
14. 鄧鐵濤主編, 實用中醫診斷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8.
15. 趙恩儉主編, 中醫診斷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8.
16. 王叔和, 脈經, 何大任本, 東洋醫學研究會, 1981
17. 李梴, 編註醫學入門, 大星文化社, 1994.
18. 김창규, 陳士鐸의 生涯와 醫學思想, 한의학논문집 3권 1호 p104-106, 1994/
19. 傳統醫學研究所編纂,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 民衆書林, 漢韓大字典, 서울, 1998.
21.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22. 韓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編, 韓醫學大辭典, 東洋醫學研究員出版部, 1985.
23. 高大民族文化研究所編, 中韓辭典, 中國語大辭典編纂室, 1993.

254) “看脈必須看症, 蓋症所以印證夫脈也。夫人之脈不同, 有天生陰脈而不現之于皮毛之內, 又將何處看脈? 故必觀其症候之若何, 而症候正難辨也。或者其起居之靜躁, 靜爲陰而躁爲陽也。看其飲食之寒熱, 喜寒爲熱而喜熱爲寒也。問其大小便之燥濕短長, 燥短爲實而濕長爲虛也。辨其口舌之黃白峭滑, 黃峭爲邪盛, 而白滑爲正衰也。是觀症所以濟切脈之窮, 而切脈所以輔觀症之妙耳。”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6~67.

255) “寸,關,尺分上中下切之是矣, 然其中有上而兼中者, 有中而兼下者, 有中而兼上下者, 又不可不知之也。如寸脈浮而連于關, 關脈數而連于尺, 如關脈大而連于寸尺者是也。此又當合寸,關,尺而同觀, 又不可專主于寸而不及關, 專主于關而不及寸尺, 又在臨症切脈而變通之也。” 柳長華 主編 前揭書 p.71.

256) “臟腑之病, 雖各不同, 要不外五行之生克, 逢生則病易愈也, 逢克則病痊難也。” 柳長華 主編, 前揭書 p.65.